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이 원 규

2011 년 8 월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 연구

지도교수 문혜경

이원규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8월

이원규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1 년 8 월

A Study of Domitian's Christian Persecution

Won-Gyu Lee

(Supervised by Professor Hye-Kyung Mo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

2011.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Hye-Kyung Moon, Prof. of History

Date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II. 도미티아누스의 집권배경과 통치형태	8
1. 집권 배경	8
2. 통치 형태	15
III.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요인	25
1. 황제숭배 거부	25
2. 유대인 세금 납세 거부	32
3. 제신숭배 거부	41
4. 기독교의 만인평등사상	49
VI. 결론	55
참고문헌	60
ABSTRACT	65

표 목 차

<표 1> 로마 군단병의 봉급변화 18
<표 2> 네 식구 가정의 1년 최저 생계비 19

그 림 목 차

<그림 1> 기원후 1세기 로마사회 계층의 개관 50

I. 서 론

기원후 1세기경 팔레스타인(Palestine) 지역에서 발생하여 로마제국으로 전래된 기독교는 기원후 64년 네로(Nero) 황제시기를부터 기원후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Diocletianus) 황제시기에 이르기까지 로마제국의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다.¹⁾ 로마제국의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는 기원후 313년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 기원후 306-337) 황제가 로마국교로 공인하기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순교와 저항의 역사를 만들어 냈다.

로마제국의 기독교 박해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기원후 64년 7월에 발생한 로마대화재 사건으로 인해 네로 황제 자신에게 빗발치는 비난여론을 가라앉히고자 기독교인들에게 방화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씌워 대대적인 처벌을 가하였던 것이다.²⁾ 네로 황제의 뒤를 이어 로마역사상 두 번째로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가 도미티아누스(Domitianus, 기원후. 81-96)였다.

도미티아누스는 플라비우스(Flavius) 황실 가문에 해당되는 베스파시아누스(Vespasianus, 기원후 69-79) 황제의 차남이었다. 도미티아누스는 베스파시아누스의 사망으로 인해 황위를 물려받은 형 티투스(Titus, 기원후 79-81) 황제가 후사를 남기지 않고 재위 2년 만에 단명함으로써 플라비우스 황실 가문의 세 번째 황제가 되었다.³⁾ 재위 초기에 도미티아누스는 제국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의롭고 성실한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허위 고발자들과 비방꾼들을 처벌하였고 공정한 재판을 실시하였다. 수에토니우스(Suetonius)에 따르면 “그는 종종 포룸 법관석의 특별 좌석에 앉아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재판을 실시하였고 로마의 관리들과 속주 총독들을 철저히 감독함으로써 어느 때보다도 정직하고

1) 로마제국의 기독교 박해는 1. 네로(기원후 54-68) 2. 도미티아누스 3. 트라야누스(Trajanus, 기원후 98-117) 4. 아우렐리우스(Aurelius, 기원후 161-180) 5. 세베루스(Severus, 기원후 193-211) 6. 막시미누스(Maximinus, 기원후 235-238) 7. 데키우스(Decius, 기원후 249-251) 8. 발레리아누스(Valerianus, 기원후 253-260) 9. 아우렐리아누스(Aurelianus, 기원후 270-275) 10. 디오클레티아누스(기원후 284-305)시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Wm. B. Eerdmans Pub Co., 1949) p 33).

2) Tacitus, *annales*, 15.44-45.

3) 조윤정의 『열두명의 카이사르』 (다른세상사, 2009)번역을 대본으로 삼아 다소의 수정을 거쳤다: Suetonius, *Domitianus*, 2.3.

공정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⁴⁾ 이처럼 통치 초기에 유능하고 성실한 황제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도미티아누스는 통치 후반으로 갈수록 포악하고 잔인한 폭군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도미티아누스는 그의 통치 후반기인 기원후 90년 이후 공포정치를 통해 원로원 의원들과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하고 추방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재위초기의 온화하고 유능한 행정가였던 도미티아누스가 통치 후반부에 공포정치를 실시한 폭군으로 변모한 까닭은 무엇일까? 또한 도미티아누스의 공포정치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성격을 검토하면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이후 로마 역사상 두 번째 기독교 박해에 해당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요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로 인해 도미티아누스의 통치와 성격을 재조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로황제의 박해 이후 연속적인 기독교 박해사(迫害史)의 흐름을 탐구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성격과 통치에 관한 고대 로마역사가들의 평가는 공통적으로 도미티아누스를 폭군적인 황제로서 로마 귀족사회와 기독교를 박해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수에토니우스는 “재위 초기 도미티아누스는 미덕을 갖춘 유능함으로 매우 훌륭하게 제국을 다스렸지만 재위 후반으로 갈수록 잔악무도한 폭군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나아가 “도미티아누스는 원래 성격이 포악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통치 후반에 점차 탐욕스러워졌고 그에 대한 암살과 반란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정적(政敵)에 대해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다”⁵⁾라고 평가하고 있다.

디오 카시우스(Dio Cassius)는 “통치 초기부터 아침을 듣고 싶어 했고 자신의 비유를 맞추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도미티아누스의 성격은 매우 포악했다”⁶⁾라고 언급한다. 유세비우스(Eusebius Pamphilus)는 “도미티아누스가 많은 귀족들과 저명인사들을 부당하게 살해했고 특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두 번

4) Suetonius, *Domitianus*, 8.1.

5) Suetonius, *Domitianus*, 3.2.

6) Dio Cassius, *Historia Romana*, 67.4.

제 황제였다”⁷⁾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고대 사료에 기반을 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 워터(K. H. Waters)를 중심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성격과 통치를 재조명한 연구에 힘입어 고조되었는데 주로 두 가지 시각으로 논의되어 왔다.

하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한 폭군으로서의 이미지 대신에 유능한 행정가로서 로마 제국을 다스렸다는 점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견해와, 다른 하나는 비록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탁월한 행정력으로 로마 제국을 통치하였을지라도, 도미티아누스의 공포정치로서 기독교인을 박해한 점으로 인해 폭군으로 이해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이분법적 논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실제 로마 제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에 대한 평가에 관해서는 학자들의 주된 논쟁을 불러왔다.

이러한 논쟁 중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학자 워터는 “전통적으로 폭군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묘사되어온 도미티아누스의 성격이 재조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실제 도미티아누스는 온화한 성격을 소유한 인물이자 훌륭한 행정가였다”고 강조한다.⁸⁾ 릭케(B. Reicke) 또한 “도미티아누스는 폭군이자 기독교를 박해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제국의 번영을 위하여 정직하고 공정한 정책을 실시하였던 훌륭한 행정가였다”고 평가한다.⁹⁾

툼슨(L. L. Thompson)도 요한계시록(Revelation) 13:15절의 내용¹⁰⁾에서 “사도 요한(St. John)은 도미티아누스에 관해 폭군으로서의 모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립적인 관찰자의 시각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7) Eusebius Pamphilus, *Historia Ecclesiastica*, 3.17.

8) K. H. Waters, "The character of Domitian" *Phoenix*, Vol. 18(1964), pp. 69.

9) B. Reicke, "Inauguration of Catholic Martyrdom according to St John the divine" *Augustinianum*, Vol. 20(1980), p. 283.

10)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밋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성서원 성경편찬위원회, 『요한계시록』(성서원, 2008), p. 412).

박해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다.¹¹⁾

크리스토퍼(S. Christopher)는 “도미티아누스는 로마제국의 평화와 행정에 성실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훌륭한 황제이자 유능한 행정가였지만 그가 박해하였던 원로원 의원들과 기독교인들에 의해 도미티아누스가 폭군으로 묘사되었다고 강조한다.¹²⁾

다음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케레스쯔테스(P. Keresztes)는 기원후 95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로부터 추방조치를 받은 플라비아 도미틸라(Flavia Domitilla)에 관해 언급하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여 조카 도미틸라가 폰티아(Pontia) 섬으로 추방당한 이유는 확실히 그녀가 기독교를 신봉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여 조카의 추방은 당시 로마사회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황실 가족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³⁾

무어(H. Moore)는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와 그 성격을 재조명하는 학자들의 연구로 인해 도미티아누스가 훌륭한 행정력을 발휘한 행정가라는 사실을 규명해내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사실까지 그의 유능한 통치 행위라고 평가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고대의 사료들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폭군이자 기독교에 대한 잔인한 박해자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⁴⁾

맥코르믹(P. McCormick)은 “도미티아누스 스스로 ‘살아있는 신’으로 자처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도미티아누스를 유능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자기 망상에 사로잡혀 로마의 귀족 사회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폭군이었다”고 주장한다.¹⁵⁾

한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에 관한 국내연구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성격과 통치 행위를 통하여 도미티아누스 황제시기에 기독교 박해상황을 탐구한 정기환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박해」¹⁶⁾와 「플라비아누스 황제시대의

11) L. L. Thompson, *The book of the Revel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p. 101.

12) Scarre Christopher, *Chronicle of the Roman emperors* (Thames, 1995), p. 76.

13) P. Keresztes, "The Jews, The Christians, and The Emperor Domitian", *Vigiliae Christianae*, Vol. 27(1973) p. 1.

14) H. Moore. "Domitian part I", *Irish Biblical Studies*, Vol. 25(2003), pp. 100-101.

15) P. McCormick. "Domitian part II", *Irish Biblical Studies*, Vol. 25(2003), p. 144.

기독교」,¹⁷⁾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와 황제숭배 문제를 논의한 유은걸의 「요한계시록의 황제제의」¹⁸⁾ 등이 있다.

정기환은 「도미찌아누스 황제와 박해」에서 “도미티아누스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포악성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고 특히 여러 차례에 걸친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정 고갈을 해결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함으로써 기독교 공동체에 극심한 어려움을 끼쳤다”고 언급한다.¹⁹⁾ 또한 그의 「플라비아누스 황제 시대의 기독교」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시기에 시행되었던 기독교 박해가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교도들과 다른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의 차이를 확인하게 되는 박해였다”고 주장한다. 즉 “네로 황제의 특별한 기독교 박해를 제외하고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전까지의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합법성이라는 범주 안에서 보호를 받아왔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시기부터는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도들과는 다른 종교집단으로 확인되었고 따라서 이들은 황제의 정책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는 비밀집단으로 이해되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강조한다.²⁰⁾

나아가 유은걸은 「요한계시록의 황제제의」에서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의 내용을 근거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와 황제숭배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²¹⁾

본고에서는 케레스프테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도미티아누스의 부정적인 평가에 기반을 두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탁월한 행정력으로 로마 제국을 통치하였을지라도 고대 로마역사가들의 사료를 통해서 도미티아누스가 폭군으로서 기독교인을 박해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필자는 연구방법으로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참주적인 폭군이자 기독교 박해자로 묘사하고 있는 고대의 사료를 통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요인을 논의하려고 한다. 즉 기원후 1세기와 2세기 사이에 저술된 요세푸스

16) 정기환, 「도미찌아누스 황제와 박해」 『현대사상연구』 Vol. 2(1985), pp. 25-36.

17) 정기환, 「플라비아누스 황제시대의 기독교 -도미찌아누스 황제시기의 몇 명의 귀족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서양고대사연구』 Vol. 13(2003), pp. 63-89.

18) 유은걸, 「요한계시록의 황제제의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을 중심으로-」 Vol. 15(2008), pp. 469-503.

19) 정기환, 「도미찌아누스 황제와 박해」 p. 36.

20) 정기환, 「플라비아누스 황제시대의 기독교 -도미찌아누스 황제시기의 몇 명의 귀족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pp. 83-85.

21) 유은걸, 「요한계시록의 황제제의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을 중심으로-」 pp. 502-503.

(Josephus)²²⁾의 『유대전쟁사*Bellum Judaicum*』와 수에토니우스의 『로마황제*De vita Caesarum*』, 및 디오 카시우스의 『로마사*Historia Romana*』, 그리고 기원 후 4세기에 저술된 유세비우스의 『교회사*Historia Ecclesiastica*』를 기본자료로 삼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제1차 유대반란²³⁾을 배경으로 발생한 도미티아누스의 집권 배경과 도미티아누스의 통치 형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도미티아누스의 집권 배경에서는 군인이었던 도미티아누스의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의 장남 티투스를 거쳐 차남 도미티아누스에게까지 제위(帝位)가 이어지게 된 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도미티아누스의 통치 형태에서는 도미티아누스가 형 티투스의 급사(急死)로 인하여 즉위하게 된 배경 속에서 그의 통치의 형태와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III장에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요인을 황제숭배 거부, 유대인 세금 납세 거부, 제신숭배 거부, 기독교의 만인평등사상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황제 숭배 거부에서는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숭배정책의 성격과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황제숭배정책에 대한 인식과 차이를 살펴보고, 나아가 기독교인들의 황제숭배정책에 대한 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유대인 세금 납세 거부에서는 도미티아누스의 유대인 세금정책의 성격과 유대인 세금납세자들의 범위 및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세금 납세를 거부한 배경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신 숭배 거부에서는 도미티아누스의 제신숭배 양상을 살펴보고 기독교인들의 제신숭배거부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만인평등사상에서는 만인평등사상에 관해 살펴보고 이러한 사상이 로마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에 관한 고찰을 통해 로마역사상 기독교

22) 기원후 66년에 유대반란군의 지휘관으로 싸웠던 요세푸스는 기원후 67년 자신이 지키던 요타파타(Jotapata) 요새가 함락되자 당시 진압군 총사령관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에게 투항하였다. 포로가 된 요세푸스는 베스파시아누스의 황제 즉위를 예언하여 풀려난 뒤 이름을 플라비우스로 바꾸고 로마군에 협력하였다. 그는 후에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시민권, 연금, 토지 등을 하사받고 책을 쓰는 일에 몰두하였다(김지찬, 『요세푸스 III』 (생명의말씀사, 2008), pp. 11-15).

23) 기원후 66년 여름 로마의 유대지방 총독이었던 플루로스(Gessius Florus)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는 폭정을 일삼자 카이사리아(Caesarea)와 팔레스타인(Palestine)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로마정권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며 발발한 봉기이다. 이에 로마군 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는 기원후 68년 6월 21일에 예리고(Jericho)를 탈환하고 기원후 70년 유월절에 베스파시아누스의 장남 티투스가 예루살렘(Jerusalem)을 점령함으로써 유대독립전쟁은 일단락된다(김지찬, 『요세푸스 III』, pp. 602-605).

교 박해사의 흐름을 재조명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여겨진다.



II. 도미티아누스의 집권배경과 통치형태

기원후 1세기 전반의 로마는 아우구스투스(Augustus, 기원전 27-기원후 14) 황제가 이룩한 제정 시대를 맞이하여 제국의 평화(*Pax Romana*)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로마는 기원후 54년에 집권한 네로 황제의 폭정과 자연재해 그리고 기원후 66년경에 일어난 유대반란을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더욱이 로마정부가 유대반란을 진압 중이던 기원후 68년 6월 9일에 네로 황제가 자살함으로써 로마제국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²⁴⁾ 그렇다면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도미티아누스가 황제에 오를 수 있었는가? 이 장에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집권배경과 그의 통치형태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집권 배경

도미티아누스는 기원후 51년 10월 24일에 로마의 제 6구역에 속하는 포메그라나테(The Pomegranate)가에서 베스파시아누스의 차남으로 태어났다.²⁵⁾ 도미티아누스 가문은 원래 명망 있는 가문이 아니었으며 그의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 이전까지 가문의 일원 중 고위 공직에 오른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도미티아누스의 부친(父親) 베스파시아누스는 로마제국의 평범한 가문출신으로 세리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발칸 반도 남동쪽 트라케(Thrace) 지방의 하급 장교로 군인 생활을 시작하였다.²⁶⁾ 미천한 가문에서 태어난 도미티아누스의 어린 시절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보내야 했다.²⁷⁾

도미티아누스의 가문과 출신 배경이 그리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도미티아누스가 황제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도미티아누스의

24) Suetonius, *Nero*, 57.1.

25) Suetonius, *Domitianus*, 1.1.

26) Suetonius, *Vespasianus*, 1.2.

27) Suetonius, *Domitianus*, 1.1 ; 도미티아누스의 형인 티투스의 출생에 대해서도 수에토니우스는 『티투스 황제전』 1.1에서 “티투스는 기원후 41년 12월 30일에 셉티조니움(Septizonium) 근처의 작고 허름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기술하는 것을 보면 베스파시아누스의 집안의 형편이 넉넉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인 베스파시아누스는 네로 황제시기에 군사적인 역량을 인정받아 기원후 66년에 유대반란을 진압할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²⁸⁾ 기원후 68년 네로 황제가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자살함으로써 로마 제국은 일시적인 내란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때 베스파시아누스는 유대 반란 진압을 위해 출정한 대규모 병력을 로마로 회군시켜 내란을 종식시키고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출신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베스파시아누스가 유대 반란 진압군단의 총 지휘권을 어떻게 네로 황제로부터 받을 수 있었는가? 맥 코르믹은 “평범한 하급 장교 출신의 베스파시아누스가 수직적인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군사적인 역량과 지도력뿐만 아니라 그의 미천한 혈통적 배경이 네로 황제로 하여금 베스파시아누스에게 유대 반란 진압 군단의 총 지휘권을 준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언급한다. 즉 베스파시아누스가 지지 세력이 없는 미천한 출신이었기 때문에 감히 네로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²⁹⁾ 수에토니우스는 『네로 황제전』 40.1에서 “마침내 14년간 이어진 네로의 실정과 악행에 못 이겨 로마 세계가 그를 저버리고 말았다. 최초의 움직임은 갈리아 땅에서 일어났다. 그곳의 총독 중 한 명인 율리우스 빈덱스(Julius Vindex)가 반란을 일으켰다. 점성가들은 네로에게 언젠가는 권좌에서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으로 미루어 보아 네로는 자신의 통치 후반에 이르러 반란으로부터 권좌를 지켜야 할 할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네로 황제는 상당히 불안하고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네로 황제는 유대 반란 진압을 이끌 지휘관으로서 군사적인 역량을 겸비하면서도 자신에게 대항할 지지 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미천한 출신의 베스파시아누스를 적임자로 여겼던 것이다.

이처럼 네로 황제로부터 유대 반란 진압의 총 지휘관으로 임명된 베스파시아누스는 네로의 자살로 초래된 로마제국의 혼란과 내란을 종식시키고 황제로 즉위하게 된 것이다. 베스파시아누스는 황실의 가문도 로마의 귀족출신도 아니었지만 동방군대의 지지를 기반으로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에서 자신을 로마 황제

28) Tacitus, *Histories*, 1.50.

29) P. McCormick, "Domitian part II", p. 130.

로 선포하였고 기원후 69년에 로마의 혼란을 종식시키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³⁰⁾ 이는 곧 도미티아누스의 가문이 평범한 가문에서 로마 제국의 황실 가문으로 바뀌게 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수에토니우스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전』 1.1에서 “황실 가문으로 바뀐 플라비우스 가문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그의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및 그의 형 티투스 황제가 포함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의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로 즉위하게 되자 자신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황위를 계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³¹⁾ 하지만 도미티아누스의 이러한 기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형 티투스의 존재였다. 도미티아누스는 형 티투스로 인해 황위계승에서 배제되었다. 단지 황위계승서열상 티투스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장남으로서 차남인 도미티아누스를 앞선다는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다. 티투스는 이미 유대반란 진압으로 인해 로마 대중들과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로부터 그의 역량을 인정받고 있었다. 따라서 티투스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뒤를 이어 로마를 다스릴 유능한 차기 황제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는 자신이 마무리 짓지 못한 유대 반란을 완전히 진압하기 위하여 유대 반란을 진압할 군단의 총 지휘를 그의 장남 티투스에게 전권을 위임하였으며 반면에 도미티아누스는 이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던 것이다.³²⁾

유대반란의 총 지휘관으로 임명된 티투스는 기원후 70년 9월 유대 반란군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을 함락함으로써 유대 반란을 완전히 진압할 수 있었다.³³⁾ 요세푸스는 『유대전쟁사』에서 예루살렘전투의 유대인 사상자 수를 정확히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기간 동안 포로로 잡힌 자의 수는 97,000명에

30) 네로 황제로부터 총 지휘관으로서 유대인 반란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고 동방으로 간 베스파시아누스는 기원후 67년에 갈릴리와 유대의 해안 도시들을 되찾고 다음해에는 여리고와 엠마우스를 공략해 예루살렘을 점차 고립시켰다. 하지만 네로 황제의 자살로 로마가 내란에 휩싸이자 군단을 로마로 회군시켰고 기원후 69년 7월에 동부 군단들에 의해 황제로 추대되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기원후 69년 12월에 로마를 점령하였다(Scarre Christopher, *Chronicle of the Roman emperors*, p. 65).

31) Suetonius, *Domitianus*, 2.3.

32) Josephus, *Bellum Judaicum*, 4.9.

33) Josephus, *Bellum Judaicum*, 6.8.

달했으며 사망자의 수는 1,100,000명에 달했다.³⁴⁾

이상의 언급에서 티투스가 지휘하였던 예루살렘전투가 쉽지 않았던 전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세푸스는 5년간의 유대 반란 기간 동안 로마군에 의해 희생된 유대인 수를 1,337,490명으로 기록하고 있으며³⁵⁾, 예루살렘전투에서만 사망한 사망자 수가 1,100,000명이었다는 점에서 유대 반란 진압의 최대의 격전지가 예루살렘전투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치열했던 예루살렘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냄으로써 유대반란을 완전히 진압하게 된 티투스는 로마 대중들의 지지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확실한 후계자로서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다.³⁶⁾ 유대반란을 진압한 티투스에 관해서 수에토니우스는 『티투스 황제전』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티투스는 유대 반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임무를 맡았다. 특히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에는 그의 화살로 열두 명의 반란군을 연속해서 쏘아 죽였다고 한다. 유대 반란을 진압하는 동안에 티투스는 지휘관으로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여 군대에서 큰 존경을 받았다. 병사들은 그를 임페라토르(*Imperator*)라고 칭했고 그가 몇 차례나 지휘관을 내려놓으려 할 때마다 탄원과 협박을 동원하여 그들과 그곳에 계속 머물거나 아니면 그들도 함께 데려가 달라고 하였다.³⁷⁾

이상의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티투스가 유대 반란을 진압함으로써 군사적으로도 상당한 지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원후 66년경에 발발하여 기원후 70년에 종결된 유대반란은 티투스에게 엄청난 영예를 안겨다 준 기회로 작용하였다.

유대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한 티투스의 활약에 반해 상대적으로 도미티아누스는 위축과 열등감을 갖게 만들었으며 로마대중들에게 그의 형 티투스보다 못

34) Josephus, *Bellum Judaicum*, 6.9.

35) Josephus, *Bellum Judaicum*, 6.9.

36) Suetonius, *Vespasianus*, 25.1.

37) Suetonius, *Titus*, 5.2.

한 인물로 투영되었던 것이다. 수에토니우스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전』에서 이러한 도미티아누스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도미티아누스는 형 티투스에게 견줄 만한 권력과 위신을 얻기 위해 전혀 불필요한 갈리아와 게르마니아 원정 계획을 세웠다. 베스파시아누스의 친구들이 간신히 그를 말렸고 그는 이 일로 인하여 질책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³⁸⁾

이상의 기록에서 도미티아누스는 형 티투스가 유대 반란을 진압한 것에 견줄 만한 군사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 무리한 원정 계획을 추진하려고 한 것을 엿 볼 수 있다. 또한 그가 추진한 갈리아와 게르마니아 원정 계획이 질책을 받고 중단되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다는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도미티아누스는 형 티투스에 대해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원후 79년 6월 23일 베스파시아누스는 급성이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장남인 티투스가 로마 황제로 즉위하였다.³⁹⁾ 이에 대해 수에토니우스는 『티투스 황제전』 1.1에서 “황제로 즉위한 티투스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애정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황제로 즉위한 티투스의 인기가 상당히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티투스는 기원후 70년의 유대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한 군사적인 경험을 통하여 대중들로부터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또한 생전에 원로원에서 “티투스가 황위를 계승할 것이며 다른 사람은 결코 자신의 황위를 이을 수 없다”라고 서슴없이 말하곤 했었다.⁴⁰⁾

하지만 도미티아누스는 그의 형 티투스가 황제로 즉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수에토니우스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전』에서 이러한 도미티아누스의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38) Suetonius, *Domitianus*, 2.1.

39) Suetonius, *Vespasianus*, 24.1.

40) Suetonius, *Vespasianus*, 25.1.

티투스가 황제로 즉위하자 도미티아누스는 그의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남긴 유언장의 내용이 조작된 게 틀림없으며 원래 아버지는 자신에게 로마 제국의 반을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였다.⁴¹⁾

이상의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도미티아누스는 그의 형 티투스 황제의 즉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티투스가 황제로 즉위한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로마 대중들의 지지와 아버지의 유언으로 인해 티투스의 황제 즉위는 뒤집을 수 없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황제로 즉위하게 된 티투스는 제국을 통치함에 있어서, 특히 국가재정부분에 있어서,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와는 확연히 다른 정책을 실시하였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어려운 국가재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세금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시켜 나갔다. 반면 티투스는 시민들을 위하여 온건한 세금정책을 펼쳤다.⁴²⁾ 이는 수에토니우스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전』 23.3에서 공중화장실에까지 세금을 부과한 베스파시아누스의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현한 티투스의 모습에서도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수에토니우스의 『티투스 황제전』 기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티투스는 시민들에게 혹독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사유재산을 존중해 주었으며 충분히 허용되거나 관례적인 선물조차 받으려 하지 않았다. 티투스 이전에 그런 관대함을 보여 준 황제는 한 명도 없었다.⁴³⁾

이상의 내용에서 티투스의 온건한 통치가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 상당히 관대한 인상을 주었고 이러한 티투스의 모습은 로마 대중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나아가 티투스의 통치 기간에 로마제국은 갖가지 큰

41) Suetonius, *Domitianus*, 2.1.

42) Suetonius, *Titus*, 7.3.

43) Suetonius, *Titus*, 7.3.

재난을 겪게 되었는데 이러한 재난 속에서도 티투스는 훌륭한 통치자의 모습으로 재난을 극복해 나갔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수에토니우스의 『티투스 황제전』에서 다음과 같이 상세히 언급되고 있다.

티투스의 통치기간에는 끔찍한 재앙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캄파니아(Campania)에서는 베스비우스(Vesuvius)화산이 폭발했고 로마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흘 밤낮으로 불길이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전례가 없는 끔찍한 역병이 발생했다. 하지만 티투스는 이런 갖가지 재앙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로마 대중들에게 열정적인 관심과 염려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티투스의 모습은 마치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깊은 애정과도 같았다.⁴⁴⁾

이상의 내용에서 티투스는 재난의 피해를 타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 티투스는 기원후 81년 9월 1일 황제로 집권한지 2년 2개월 20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⁴⁵⁾ 티투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로마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수에토니우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티투스의 죽음은 본인보다 로마제국에 훨씬 더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티투스가 죽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전 로마인이 마치 가족이 죽은 것처럼 상복을 입었다. 원로원 의원들은 공식적인 소집을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기도 전에 원로원 건물로 서둘러 달려갔다. 문이 열리자 그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티투스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이제 주검으로 변한 그에게 생전보다 더 큰 감사와 칭송을 바쳤다.⁴⁶⁾

이상의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서 티투스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가 얼마나 대단

44) Suetonius, *Titus*, 8.3.

45) Suetonius, *Titus*, 11.1.

46) Suetonius, *Titus*, 11.1.

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티투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의 아우 도미티아누스에게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는 행운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도미티아누스는 그의 형 티투스가 황제로 있었을 때부터 끊임없이 황제의 자리를 탐내고 있었고 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갖가지 음모를 꾸몄었기 때문이다. 수에토니우스는 『티투스 황제전』에서 도미티아누스의 이러한 행동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티투스의 동생 도미티아누스는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티투스를 살해하기 위한 음모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거의 노골적으로 군대를 선동하였다. 그러나 티투스는 도미티아누스를 처형하거나 궁정에서 추방하거나 모욕을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통치 첫날과 똑같이 도미티아누스에게 ‘네가 나의 동료이자 동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는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리고 티투스는 종종 도미티아누스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에게 애착을 가져달라고 부탁하였다.⁴⁷⁾

이상의 내용에서 도미티아누스가 티투스의 황위를 지속적으로 탐내고 있었을 뿐 아니라 형 티투스가 죽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도미티아누스가 형 티투스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은 도미티아누스가 티투스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수에토니우스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전』 2.3에서 “도미티아누스는 비밀리든 공개적으로든 형에 대한 음모를 그친 적이 없었다. 티투스가 쓰러져 위독하자 도미티아누스는 그가 숨을 거두기도 전에 시종들을 그의 병실에서 물러가게 했다. 도미티아누스는 후에 형 티투스의 신격화를 승인한 것 외에는 형에게 어떠한 영예도 수여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도미티아누스가 얼마나 티투스의 죽음을 기다렸고 자신이 황제가 되기를 갈망했는지를 알 수 있다.

베스파시아누스의 황위를 물려받은 티투스 황제는 즉위 2년 만에 후사를 남기

47) Suetonius, *Titus*, 9.3.

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며 그 뒤를 이은 도미티아누스는 기원후 81년 9월에 황제로 즉위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기원후 68년 네로 황제의 자살 이후 로마 제국의 혼란 속에서 유대반란진압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로 즉위하게 됨으로써 도미티아누스는 그의 형 티투스의 뒤를 이어 황제로 즉위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통치 형태

도미티아누스는 기원후 81년 9월에 즉위하여 기원후 96년 9월 18일에 암살되기까지 15년간 로마제국을 통치하였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도미티아누스의 통치방식은 무엇이며 또한 그의 중심 정책은 무엇이었을까? 여기에서는 도미티아누스의 통치기간 중에 행해진 전제군주적인 통치와 군인봉급인상, 대규모의 공공건물 건립 및 화려한 공공 행사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도미티아누스의 전제군주적인 통치를 살펴본다면, 도미티아누스는 역대 로마황제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스스로를 ‘주인이자 신’(Dominus et Deus)이라는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강력한 전제 군주적인 통치를 하였다.⁴⁸⁾ 이와 관련하여 수에토니우스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전』 10.2에 따르면,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의 정책을 반대한 원로원 의원들을 가차 없이 죽였다. --- 전통적으로 동료 원로원 의원들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로마 법률에 금지된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원로원 의원들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도미티아누스는 로마사회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었던 그리고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원로원 의원들을 자신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거리낌 없이 제거하였으며 그의 공포정치로 인해 원로원의 기능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⁴⁹⁾ 이는 도미티아누스가 강력한 전제군주제를 지향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또한 도미티아누스가 9월(September)과 10월(October)에 대한 명칭을 자신의

48) Suetonius, *Domitianus*, 13.2.

49) H. Moore, "Domitian" part I, p. 81.

이름과 칭호를 따서 게르마니쿠스(Germanicus)와 도미티아누스(Domitianus)로 바꾸었다.⁵⁰⁾ 이처럼 도미티아누스가 실시하였던 전제군주적인 통치 배경에 관해 크리스토퍼는 도미티아누스의 열등감이 전제군주적인 통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⁵¹⁾ 도미티아누스는 항상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와 형 티투스의 명성에 가려져 무시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수에토니우스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가 위엄 있는 의자에 앉은 모습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나면 그는 가마를 탄 채 뒤를 따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유대 전쟁 개선식 때도 그는 가마에 탈 수 없었다. 그가 황제가 되기 전 집정관으로 임명된 적은 단 한번뿐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형이 그 자리를 끝까지 사양하면서 그를 추천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⁵²⁾

이상의 언급으로 미루어보아 도미티아누스는 아버지와 형처럼 명성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의 명성에 가려 그들의 뒤를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미티아누스의 이러한 열등감은 그의 통치방식에 반영되어 해를 거듭할수록 그의 전제군주적인 통치가 심해졌다. 도미티아누스는 점점 더 밀고자들로부터 고발된 반역행위를 한 자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하였다.⁵³⁾ 이러한 도미티아누스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 당시의 로마사가 타키투스(Tacitus)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네로조차도 자기가 명령한 추악하고 잔인한 행위를 목격하는 일은 삼갔다. 하지만 도미티아누스의 치세 아래에서 우리가 겪는 비참한 일의 반 이상은 바로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는데 있었다. 우리는 도미티아누스의 추악하고 잔인한 행위를 보고도 한숨을 내쉴 수가 없었

50) Suetonius, *Domitianus*, 13.3.

51) Scarre Christopher, *Chronicle of the Roman emperors*, p. 80.

52) Suetonius, *Domitianus*, 2.1.

53) Suetonius, *Domitianus*, 10.5.

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도미티아누스의 눈에 띠게 되면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⁵⁴⁾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도미티아누스의 통치는 네로황제 보다 더 포악한 폭군으로서 통치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네로와 도미티아누스의 치세를 모두 경험하였던 타키투스가 도미티아누스에 대해 네로를 뛰어넘는 폭군으로 기술한 점은 의미심장하다. 무어는 “타키투스는 충성을 다하여 도미티아누스를 섬겼고 그의 충애를 받으며 출세를 한 인물이었지만 도미티아누스의 폭군적인 통치 때문에 도미티아누스의 15년간의 통치를 맹렬히 비난하였다”⁵⁵⁾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도미티아누스는 공포정치를 통한 전제적인 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다음으로 도미티아누스의 로마 군인에 대한 봉급인상 정책을 살펴본다면, 도미티아누스는 로마 군단병들의 봉급⁵⁶⁾인상을 추진하여 국가의 재정을 막대하게 지출하였다. 이는 수에토니우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전』 12.1에서 “로마 군단병들에 대한 무리한 봉급인상으로 재정을 과도하게 지출하였다”는 언급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도미티아누스는 로마 군단병들의 1년 봉급을 225테나리우스(denarius)⁵⁷⁾에서 300테나리우스로 인상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점에 관해 수에토니우스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도미티아누스는 로마 군인들의 봉급을 일 년에 225테나리우스에서 300테나리우스로 인상하였다.⁵⁸⁾

54) Tacitus, *Agricola*, 45.1.

55) H. Moore, "Domitian part I", p. 80.

56) 배은숙은 “우리말에서 ‘급료’나 ‘봉급’이 모두 일한 것에 대한 지불대가를 의미하는 용어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급료’는 일급 등의 품삯을 지칭하고 ‘봉급’은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받는 일정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제정기에 한번 입대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복무할 의무가 발생하는 로마 군인들에게는 ‘급료’라는 용어보다 ‘봉급’이라는 말이 더욱 적절하다”고 강조한다(배은숙, 「로마 군단병의 봉급 변화」 『대구사학』 Vol. 75(2004), p. 294).

57) 로마제국의 화폐단위는 다음과 같다.

1 sestertius = 4 asses

1 denarius = 4 sestertius = 16 asses

1 aureus = 25 denarius = 100 sestertius = 400 asses

기원후 1세기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1테나리우스였다(Henry C. Boren, "Numismatic Light on the Gracchan Crisis" *Th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Vol. 24(1980), pp. 2-3).

58) Suetonius, *Domitianus*, 7.3.

디오 카시우스 또한 도미티아누스의 로마 군인들의 봉급인상금액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도미티아누스는 로마 군인들의 봉급을 인상하였다. 즉 로마 군인들이 기존의 연봉으로 받고 있던 300세스테르티우스(sestertius)에서 100세스테르티우스를 인상한 금액인 400세스테르티우스를 연봉으로 지급하였다.⁵⁹⁾

이상에서 디오 카시우스는 수에토니우스가 표현한 화폐단위인 데나리우스와 다른 세스테르티우스 단위로 도미티아누스의 군인봉급인상금액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1데나리우스는 4세스테르티우스에 해당되는 가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디오 카시우스가 언급한 400세스테르티우스는 데나리우스로 변환하여 계산하였을 경우 75데나리우스라는 값이 나온다. 즉 수에토니우스가 도미티아누스의 군인봉급인상금액으로서 기록한 75데나리우스와 디오 카시우스가 언급한 400세스테르티우스는 화폐단위만 다를 뿐 동일한 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두 역사가가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는 도미티아누스의 군인봉급인상금액을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 낼 수 있다.

<표 1> 로마 군단병의 봉급변화

황제 \ 화폐단위	데나리우스	세스테르티우스	아시스
아우구스투스 (Augustus) (B.C.27-기원후14)	225	900	3600
도미티아누스 (Domitianus) (기원후81-96)	300	1200	4800

59) Dio Cassius, *Historia Romana*, 67.3.

따라서 로마 군인들은 아우구스투스 시기부터 도미티아누스가 군인들의 봉급을 인상하기 직전까지 한 해에 225테나리우스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⁶⁰⁾ 로마 군인들이 연봉으로 받은 225테나리우스를 아시스 단위로 환산하면 3600아시스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는 한 해에 3600아시스를 받는 로마 군인들의 연봉을 일당으로 계산해봤을 때 1테나리우스에도 못 미치는 액수인 약 10아시스를 받아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타키투스 역시 “아우구스투스 통치기에 로마 군인들의 일당은 분명히 10아시스였다”⁶¹⁾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곧 하루에 1테나리우스, 즉 16아시스의 품삯을 받는 일용 노동자들보다도 로마 군인들의 수입이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⁶²⁾ 이와 관련하여 사회사가 슈테케만(Stegemann)은 기원후 1세기 로마제국의 4인 가족 1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⁶³⁾

<표 2> 네 식구 가족의 1년 최저 생계비

시골	250-300테나리우스
일반 도시	600-700테나리우스
로마시 변두리	900-1000테나리우스
로마시 변화가에서 소박한 생활	5,000테나리우스
로마시 변화가에서 부유한 생활	150,000테나리우스

이와 같은 슈테케만의 자료에 의거한다면 당시 군인들이 한 해 연봉으로 225테나리우스를 받고 있다는 점은 군인들의 생활이 4인기준 시골가정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오늘날의 모습과 달리 당시

60) 로마제국이 아우구스투스 시기부터 도미티아누스가 군인들의 봉급을 인상하기 직전까지 로마 군인들에게 지급하였던 225테나리우스는 75테나리우스를 4개월마다 1회씩 총 3번에 걸쳐 분할 지급하였다(배은숙, 「로마 군단병의 봉급 변화」, p. 295).

61) Tacitus, *annales*. 1.17.

62) Garnsey, *Social Status and Legal Privilege in the Roman Empire* (Oxford, 1970), p. 126.

63) 사회사가 슈테케만은 기원후 1세기 로마제국의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산출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슈테케만은 성인 남성 한 사람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평균 칼로리를 2500킬로칼로리로 잡았다. 그리고 빵 한 개에 대략 1200~1400킬로칼로리의 열량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당시 폼페이에서 3아시스로 2500킬로칼로리를 채울 수 있는 빵 두 개를 살 수 있었다. 따라서 성인 남성 한명의 1년 치 식대는 69테나리우스이다. 여기에 세 식구와 노예 한명 그리고 조세납부 및 각종 부대비용을 합하면 600테나리우스에 달하는 1년 치 생활비가 나오는데 이를 농촌에 살고 있는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최소한 250-300테나리우스에 달하는 최저 생활비가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다(Stegemann, *The Jesus Movement: a social history of its first century* (Fortress Press, 1999), p. 149).

로마 제국의 군인들은 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들이 받은 봉급으로 해결해야 했다. 즉 국가가 의식주와 무기를 직접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봉급을 주고 이 봉급에서 의식주 비용과 투창, 방패, 검, 단도 등의 각종 무기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었다.⁶⁴⁾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기원후 1세기 로마제국의 군인들은 상당히 열악한 급여수준으로 생계를 유지해나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 약 70년 만에 군인봉급을 300테나리우스로 인상한 도미티아누스의 군인봉급 인상정책으로 인해 도미티아누스는 로마제국의 군인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 수에토니우스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전』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일반대중들은 암살당한 도미티아누스의 죽음을 무관심으로 대했다. 하지만 군인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군인들은 즉시 도미티아누스를 신으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만약 그들에게 지도자만 있었다면 도미티아누스의 복수를 감행했을 것이다. 군인들은 끝까지 도미티아누스의 암살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도미티아누스를 암살한 범인들은 모두 처형되었다.⁶⁵⁾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도미티아누스의 죽음을 모두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들만이 도미티아누스의 죽음에 애도를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도미티아누스가 군인봉급인상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군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수에토니우스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전』 13.3에서 “도미티아누스는 통치 기간 동안 군인들에게 인기를 얻을만한 전쟁을 수행한 적이 없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도미티아누스가 군인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요인이 외형적인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군인들에게 실시했던 봉급인상정책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도미티아누스가 실시하였던 군인봉급인상정책으로 인해 로마제국은 국

64) 배은숙, 「로마 군단병의 봉급 변화」, p. 294.

65) Suetonius, *Domitianus*, 23.1.

가재정의 고갈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수에토니우스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전』 12.1에서 “도미티아누스의 군인봉급인상정책이 로마제국의 재정을 고갈시켰고 황제는 고갈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본다면 도미티아누스의 군인봉급인상정책이 로마제국의 재정 악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막대한 재정지출을 초래하면서도 도미티아누스가 군인봉급 인상정책을 추진한 배경에는 그의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와 형 티투스가 군인으로써 성공한 사실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도미티아누스의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와 형 티투스가 군인으로서 유대반란 진압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로마군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던 반면에 도미티아누스는 군사적 경험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군사적인 면과 그 이외에 어떤 면에 있어서도 군인들의 인기를 얻을만한 어떠한 업적도 이룬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수에토니우스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전』 2.3에 따르면, “도미티아누스는 군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티투스가 군인들에게 준 하사금의 두 배에 달하는 액수를 특별 하사금으로 주려고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곧 도미티아누스가 항상 형 티투스의 군사적 명성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열등감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도미티아누스는 군인도 아니었고 전투경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르는 명예도 없었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 지속된 군인들의 봉급을 정책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군인봉급 인상정책으로 인해 통화 가치가 떨어져 재정악화를 초래하였을지라도 도미티아누스는 누구보다도 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병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인봉급 인상정책을 시행하였던 것이다.⁶⁶⁾

이외의 대규모의 공공건물 건립 및 화려한 공공 행사에 관해 살펴본다면, 도미티아누스는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짓는데 막대한 재정을 지출하였다. 도미티아누스가 착수한 로마의 건축 공사는 아우구스투스 이래 가장 큰 대규모 공사였다.⁶⁷⁾ 수에토니우스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전』 5.1에 따르면 “도미티아누스는 기원후 80년에 대화재로 소실된 유피테르(Eupiter) 신전을 매우 화려하게 복원했

66) H. Moore, "Domitian" part I, pp. 90-91.

67) Suetonius, *Domitianus*, 5.1.

다. 뿐만 아니라 그는 네르바 포룸(Nerva Forum), 플라비우스(Flavius) 신전, 경기장, 음악 공연장, 모의 해전을 위한 인공 호수를 만들었다. 인공 호수를 만들기 위해 파낸 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나중에 화재로 파괴된 키르쿠스 막시무스(Circo Massimo)⁶⁸⁾의 두 면을 복구하는데 사용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디오 카시우스 역시 그의 저서에서 “도미티아누스는 많은 신전들과 건물들을 복원하였는데 특히 유피테르 신전과 공공투표소(Diribitorium), 아그립파(Agrippa)의 목욕탕과 폼페이(Pompey)의 공연장 등을 매우 화려하게 복원하였다”⁶⁹⁾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수에토니우스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전』에서 도미티아누스의 과도한 공공건물 공사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도미티아누스는 화재로 파괴된 많은 화려한 건물들을 복구하였다. 그러나 그는 건물을 복구하면서 자기 이름만 새기고 원래 건축물을 세운 황제들의 이름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도시의 여러 지역에 전차와 승리의 상징물들로 화려하게 장식된 거대한 둥근 아치형 통로와 건물들을 그가 얼마나 많이 건축했는지 누군가 그 중 하나에 그리스어로 ‘이젠 충분하다’고 적어놓을 정도였다.⁷⁰⁾

이와 같은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도미티아누스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공공건물 건립으로 인해 로마제국은 막대한 재정을 지출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도미티아누스는 그의 통치 기간 내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공공 행사를 끊임없이 개최하였다. 이는 국가 재정이 급속도로 고갈된 또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수에토니우스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도미티아누스는 콜로세움과 키르쿠스에서 많은 화려한 불거리와 행사를 개최했다. 통상적인 이두 전차 경주 외에 모의 보병 전투와 기

68) 키르쿠스 막시무스는 아벤티노(Aventino) 언덕과 팔라티노(Palatino) 언덕 사이에 있었던 로마 최대의 전차 경기장이자 대규모 집단 오락시설이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운동경기장으로 꼽힌다. 키르쿠스 막시무스는 라틴어로 ‘대형 경기장’을 뜻한다(Boriaud, *Histoire de Rome*, (Baker Book House, 2001), 박명숙 역, 『로마의 역사』 (공리출판사, 2007), p. 191).

69) Dio Cassius, *Historia Romana*, 66.24.

70) Suetonius, *Domitianus*, 13.3.

병 전투를 열었고 원형 경기장에서는 모의 해전을 개최했다. 심지어 운동장에서 여자들의 도보경주를 열기도 하였다. 야간에는 횃불을 밝혀 놓고 끊임없이 검투사 시합을 개최했다. 이는 재정적인 문제로 폐지되었던 행사였는데 그는 이 행사를 다시 부활시켰다. 도미티아누스는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1인당 3아우레우스(aureus)를 주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난 직후에 연회장에서는 원로원 계급과 기사계급이 앉는 자리에 각각 선물 500개씩을 던져 주었다.⁷¹⁾

이러한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을 통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공공행사 및 야간 운동경기 등이 개최된 것을 엿 볼 수 있다. 도미티아누스는 그동안 재정손실의 이유로 폐지된 행사까지 부활시켰을 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세 차례에 걸쳐 3아우레우스를 지급할 정도로 사치스러운 향락을 즐겼던 것이다. 3아우레우스는 75데나리우스에 해당되는데⁷²⁾ 기원후 1세기에 노동자 하루임금이 1데나리우스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일용 노동자가 쉬지 않고 75일 일했을 경우에 벌어들일 수 있는 상당히 큰 액수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75데나리우스를 공공행사에 참여한 대중들에게 무려 세 차례나 지급했다는 사실은 재정적인 낭비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의 급속한 고갈을 일으킨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한편 도미티아누스의 군인봉급 인상정책과 대규모의 공공건물 건립 그리고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공공행사 정책 등은 로마제국의 재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도미티아누스는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재원 확보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⁷³⁾ 이에 대해 수에토니우스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전』 12.1에서 “많은 대중 행사를 개최하고 군단병들의 봉급을 인상한데다가 새로운 건축 공사까지 시작하면서 재원이 고갈되자 도미티아누스는 온갖 부정과 착취 수단을 동원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한다. 그는 재정관리에 심혈을

71) Suetonius, *Domitianus*, 4.5.

72) Henry C. Boren, "Numismatic Light on the Gracchan Crisis", pp. 2-3.

73) Suetonius, *Domitianus*, 12.1.

기울였고 재정상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 또한 도미티아누스는 고갈된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몰수하였으며, 이러한 사유재산몰수 법안으로 인해 지배계층 또한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다.⁷⁴⁾ 이와 같은 도미티아누스의 전제적인 통치형태는 그의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와 형 티투스 황제의 재정정책과는 아주 다른 정책이었다. 요컨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약 5년간의 유대반란진압으로 고갈된 재정을 확보하고 국력을 신장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티투스 황제 또한 로마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세금을 감면하고 온건한 통치를 실시하여 로마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것이다.

궁극적으로 네로황제의 사후 유대반란의 총사령관으로 파견된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로 즉위하면서 도미티아누스는 그의 형 티투스의 뒤를 이어 황제로 즉위하였던 것이다. 그는 황제 즉위 후 15년간 로마제국을 통치하였다. 또한 도미티아누스는 군인봉급인상, 대규모의 공공건물 건립 및 사치스럽고 화려한 공공행사 정책을 펼치면서 심각한 재정고갈을 초래하였다. 수에토니우스가 “도미티아누스는 양심적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였고 도시행정과 지방행정관에게 전례가 없는 높은 기준의 정의를 제시하였다”⁷⁵⁾고 언급하고 있지만 도미티아누스는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와 형 티투스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과 불만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명성에 눌러 상당한 열등감에 시달려왔다. 이러한 환경과 그의 성격은 결국 스스로를 ‘주인이자 신(*Dominus et Deus*)’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정도로 강력한 전제군주적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74) H. Moore, "Domitian" part I, pp. 93-94.

75) Suetonius, *Domitianus*, 8.1.

III.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요인

도미티아누스는 기원후 81년에 황제로 즉위한 후 기원후 90년에 접어들면서부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⁷⁶⁾ 도미티아누스는 즉위와 동시에 자기 자신을 ‘우리들의 주인이자 신(*Dominus et Deus*)’으로 선포하면서 신적인 숭배를 강요하였다. 자신을 신격화 시키는 도미티아누스의 강력한 전제정치 아래에서 기독교인들은 끓는 기름 솥에 던져지거나 십자가 형벌에 처해지는 등의 박해를 받았다. 그렇다면 왜 도미티아누스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을까? 이장에서는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황제숭배 거부, 유대인 세금 납세 문제, 제신숭배 거부 및 기독교의 만인평등사상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황제숭배 거부

로마제국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로 죽은 황제의 업적을 추모하여 신격화하는 것을 관행으로 삼았다. 로마시대의 황제숭배는 황제사후에 신성한 자질과 업적이 있는 황제의 치적을 원로원에서 인정하여 성스러운 지위를 부여하는 관행이었던 것이다.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은 살아있는 황제에게 신 혹은 하느님으로써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과 로마인들이 황제의 치적을 감사하는 차원에서 죽은 황제에게 영예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황제의 사후 신격화는 이전 황제에 대한 로마인들의 존경의 표시로 나타내는 것이지 그를 신으로 승인하는 것은 아니었다.⁷⁷⁾ 로마인들에게 황제숭배의 의미는 황제를 향한 내면의 충성심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던 것이다.⁷⁸⁾ 로마시민들에게 있어서 황제숭배는 제국을 결속시키는 의식이자 황제를 향한 충성심을 표현하는 행위였던 것이다.⁷⁹⁾

76) W. E. Caldwell, *The Ancient World* (New York, 1950), p. 459.

77) P. McCormick, "Domitian" part II, pp. 131-144.

78) S. R. F. Price, *Rituals and Power: The Roman Imperial Cult in Asia Mino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 57.

하지만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신, 하느님이라고 여겨 과대망상에 빠져있었으며 그가 내리는 모든 명령과 공문서에 ‘우리들의 주인이자 신께서 다음과 같이 명령 하신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입하게 하였다.⁸⁰⁾ 이에 관해 당대의 사가 수에토니우스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도미티아누스는 대단히 교만하여 자신을 신이라고 표현하였다. 그가 모든 관리들에게 서신과 공문서를 보낼 때는 항상 ‘우리들의 주인이자 신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다’라는 말로 시작하였다.⁸¹⁾

도미티아누스가 생전에 선포한 ‘신(*Deus*)’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원로원의 승인을 통하여 사망한 황제를 추앙하는 관행이었던 ‘신격화(*Divus*)’의 승인과는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⁸²⁾ 로마인들은 ‘신격화(*Divus*)’의 용어를 신 혹은 하느님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한 황제의 신성한 업적을 드러내는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황제가 죽은 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예는 ‘신격화(*Divus*)’로 공표되는 것이다.⁸³⁾ 바렛(H. Barrett)은 “로마제국의 정서에서 신격화(*Divus*)라는 용어는 황제의 위대한 업적과 역량을 기리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지 결코 살아있는 신(*Deus*)의 개념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⁸⁴⁾라고 강조한다. 또한 불(N.T. Bull)은 “로마시민들은 황제자체를 보통 인간과는 다른 초월적인 존재로 여겨왔던 전통에 따라 도미티아누스를 신으로 섬겼고 특별히 그의 황제 숭배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았다”⁸⁵⁾고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로마제국의 황제숭배정책은 도미티아누스에 앞서 로마제국을 통치한 가이우스(Gaius, 기원후 37-41)황제 시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가이우스는 도미티아누스와 마찬가지로 생전에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선포하고 황제숭배를

79) N. T. Bull, *The Rise of the Church* (London, 1967), p. 148.

80) Justo L. Gonzalez, *The History of Christianity*, 서영일 역, 『초대교회사』 (은성, 1987) p. 25.

81) Suetonius, *Domitianus*, 13.2.

82)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사회로부터 신으로 숭배되었지만 이것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사후에 원로원의 ‘신격화(*Divus*)’승인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로마인들은 공식적으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죽기 전까지 그에 대한 신격화를 논의한 적이 없었다. 또한 원로원의 승인으로 사후에 신격화되지 못한 황제들도 있었으며 그 중 한명이 도미티아누스이다(P. McCormick, "Domitian part II", p. 124).

83) P. McCormick, "Domitian" part II, pp. 134-135.

84) H. Barrett, *The Corruption of Power* (London, 1989), p. 140.

85) N. T. Bull, *The Rise of the Church*, p.153.

강요하였던 인물이었다.

수에토니우스는 『가이우스 황제전』에서 가이우스의 황제숭배정책과 이에 대한 로마대중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가이우스는 신하들에게 자신이 신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는 올림포스 신전의 제우스 상과 그 이외에 많은 그리스 신상을 가지고 오라고 떼를 썼다. 왜냐하면 자신은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 신상들의 머리를 잘라내고 자신의 두상을 붙여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가이우스는 카스토르와 폴룩스 신전을 자신의 궁전으로 삼았고 이곳에 신상들 옆에 서서 대중들의 경배를 받았다. 일부 대중들은 그를 ‘유피테르’라고 불렀다. 이외에도 그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에서는 사제들이 가장 비싼 제물을 바쳤고 실제 가이우스와 똑같은 실물 크기로 만들어진 금제 조각상에는 가이우스가 그날그날 입는 옷을 똑같이 입혔다. 부유한 시민들은 뇌물을 쓰거나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곳의 사제가 되려고 노력했다. 달마다 정해진 날짜에 대중들은 붉은 학, 공작, 암탉, 꿩 등을 제물로 바쳤다.⁸⁶⁾

이상의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가이우스가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선포하여 강력한 황제숭배정책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로마인들은 가이우스의 황제숭배정책을 거부함이 없이 오히려 순응적 태도로 가이우스를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가이우스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였던 로마인들은 도미티아누스 치세에 이르러서도 지속적으로 신적숭배를 강요받았다. 수에토니우스는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숭배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대중들은 글이나 대화 속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우리들의 주인이자 살아계신 신으로 표현하였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조각상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고 일정한 무게 이상이 나가도록 제작되어 웅장

86) Suetonius, *Gaius*, 22.3.

함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조각상은 유피테르 신전을 비롯한 각각의 신전에 봉납되었다.⁸⁷⁾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조각상을 금과 은으로 매우 화려하고 웅장하게 제작하여 유피테르 신전을 비롯한 각각의 신전에 세웠다는 사실은 대중들이 도미티아누스를 살아있는 신으로 인정하고 숭배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금과 은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제작한 도미티아누스의 조각상들을 로마의 신전에 배치되어 도미티아누스를 ‘살아계신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로마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숭배 거부는 로마제국과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 처벌받았다. 타키투스의 『연대기』 15.44에 따르면 “진정한 제국의 원수는 황제숭배를 거부한 자들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나아가 카두(C.J. Cadoux)는 “로마제국에서 황제숭배거부는 황제에게 반항심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고 언급하고 있다.⁸⁸⁾ 또한 국가에 대한 반역과 배신으로 고소된 자는 누구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조상(彫像)에 분항하도록 하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이를 거부한 자들은 반역죄로 처형되었다.⁸⁹⁾

황제숭배정책에 대한 로마시민들의 전통적인 인식에 있어서 황제숭배거부는 곧 로마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황제숭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⁹⁰⁾ 주목할 점은 이러한 로마제국의 황제숭배정책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예외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다. 즉 유대인들은 율리우스 카이사르(Julius Caesar, B.C. 47-44)의 법령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유대교 신앙과 관습이 용인되었기 때문에 황제숭배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았던 것이다.⁹¹⁾ 당시 유대인들의 왕이자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히르카누스(Hyrchanus)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집트 원정에 원군을 지원하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충심으로 도왔기 때문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법령으로 유대인들의 신앙과 관습을 용인한 것이다.⁹²⁾ 이러한 법령으로써 유대인들은 로마제국의 황제숭배정책에서

87) Suetonius, *Domitianus*, 13.2.

88) C. J. Cadoux, *The Early Church and the World* (Clark, 1995), p. 98.

89) F. F. Bruce, *The Spreading Flame* (Eerdmans, 1992), p. 205.

90) 이대섭, 『초기 기독교의 역사적 배경』 (성광문화사, 1992), p. 205.

91) Josephus, *Antiquitates Judaicae*, 14.10.

92) 히르카누스와 관련한 율리우스 카이사르 법령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황제인 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원로원의 동의를 얻어 이같이 선포하노라. 히르카누스는 우리 일에 충성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애써 왔으며 알렉산드리아 전쟁 때에는 1,5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원군으로 우리를 도왔다. 이런 이유로 나는 히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기원후 41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발생한 유대인 봉기⁹³⁾를 배경으로 선포된 클라우디우스(Claudius, 기원후 41-54)황제의 법령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클라우디우스 법령의 내용에 대해 요세푸스는 『유대고대사 *Antiquitates Judaicae*』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아우구스투스께서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습과 종교적인 율법을 범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다. 그런데 가이우스는 이를 무시하고 광기(狂氣)마저 있어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기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갔었다. 그러므로 나는 가이우스와 같은 정책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권리와 특권이 상실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유대인들이 전부터 누려오던 권리와 특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들 나름의 풍습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뜻이다.⁹⁴⁾

이처럼 로마사회에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신앙과 관습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도미티아누스 통치기에 황제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사료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유대인들의 신앙과 관습이 로마제국의 법령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유대인들은 황제숭배 거부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교리적으로 전혀 다르지만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유대교와 유사성을 갖는다. 이러한 유일신 사상으로 인해 기독교에서는 신을 자처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르카누스와 그의 후손을 유대의 지배자로 임명할 것이며 그들의 조상의 율법에 따라 그들을 영원토록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삼겠노라. 그리고 유대인을 나의 동맹으로 인정할 것이며 앞으로 그대들의 유대인 율법에 수반되는 모든 권리와 특혜를 인정하겠노라”(Josephus, *Antiquitates Judaicae*, 14.10).

93) 요세푸스는 이 사건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법령에 근거하여 로마 사회의 황제숭배정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던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에게 가이우스 황제는 자신에게 신적인 숭배를 올리도록 강요하였다. 유대인들이 이에 반발하자 가이우스 황제는 자신을 따르는 알렉산드리아의 헬라인들을 동원하여 유대인들을 박해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가이우스 황제가 죽자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의 박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고 봉기를 한 것이었다”(Josephus, *Antiquitates Judaicae*, 19.5).

94) Josephus, *Antiquitates Judaicae*, 19.5.

일이었다. 사도 바울(Paul)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녔던 누가(Luke)가 기원후 61년경에 기록한 사도행전⁹⁵⁾ 17:16-32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상숭배금지에 관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바울이 아테네(Athens)에서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하였다. 이렇게 바울과 논쟁하는 사람들 중에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다. 바울이 아레오파구스(Areopagus) 회의가 열리는 곳에 서서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우상숭배 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한 행동을 회개하고 우주와 그 가운데 살아계셔서 만물을 지으신 하느님을 믿으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겠다고 했다.⁹⁶⁾

이와 같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사례는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하느님만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상숭배를 얼마나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상에 입각해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숭배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적 문제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클라우디우스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다. 즉 그들의 신앙과 행동을 양심적으로 주장하고 보호받을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그들에게는 없었다. 맥 코르믹은 “도미티아누스 통치기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로마제국의 어떠한 보호도 없이 박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⁹⁷⁾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숭배정책은 기독교인들에게 심각한 신앙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유세비우스는 『교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95) 기원후 61년경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기독교인들의 전교활동을 자세히 서술한 작품으로 일컬을 수 있다. 특히 누가는 사도 바울(Paul)과 전도 여정을 함께 한 인물이었다(Owen Chadwick, *A History of Christianity* (Thomas Dunne Books, 1995), p. 7).

96) 성서원 성경편찬위원회, 『사도행전』, p. 218.

97) P. McCormick, "Domitian part II", p. 143.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로 즉위한 지 15년째 해에 집정관이었던 클레멘트(Flavius Clement)의 조카딸 도미틸라(Flavius Domitilla)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폰티아(Pontia) 섬으로 유배되었다.⁹⁸⁾

이상의 내용에서 집정관 클레멘트의 조카딸이었던 도미틸라가 유형에 처해지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즉 도미틸라가 처벌을 받게 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고 있다’는 그녀의 고백이었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점은 앞서 밝힌 바울의 연설내용처럼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느님만을 경배한다는 신앙고백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실은 도미티아누스의 재위 15년에 해당하는 기원후 95년에도 어김없이 하느님 이외의 신성을 거부하고 황제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의 사상이 여전히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디(E. R. Hardy)는 “기독교인들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향한 숭배행위를 단호히 거부한 사실이야말로 기독교 박해의 요인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⁹⁹⁾ 프라이스 역시 “도미티아누스와 기독교인들이 충돌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사실상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숭배정책을 무시한 기독교인들의 태도 때문이었다”고 지적하였다.¹⁰⁰⁾ 무어는 “요한계시록13장 15-17절의 내용은 기독교인들이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숭배정책에 의식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¹⁰¹⁾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고 끝까지 하느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지켜야만 가능하다는 예수의 가르침¹⁰²⁾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황제숭배는 천국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철저히 배격되는 행위였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살아있는 신을 자처한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숭배정책을 강하게 거

98) Eusebius Pamphilus, *Historia Ecclesiastica*, 3.18.

99) E. R. Hardy, *Faithful Witness*, p. 10.

100) S. R. F. Price, *Rituals and Power: The Roman Imperial Cult in Asia Minor*, p. 123.

101)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세에 사도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묘사된 짐승이 자기 숭배를 강요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사도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술할 당시에 발생한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숭배강요와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학계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숭배를 거부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H. Moore. "Domitian part I", p. 76).

102) 성서원 성경편찬위원회, 『사도행전』, p. 213.

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황제숭배거부 태도는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 요인이 될 수 있다. 로마제국 시기에 황제숭배 거부
는 황제에게 충성을 거부하는 반역죄로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황
제숭배를 거부하고 오히려 박해를 받았던 것이다.

궁극적으로 황제숭배는 공적인 제례를 공동체가 수행하는 비종교적인 것이다.
이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사회학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¹⁰³⁾ 유한
한 존재인 도미티아누스 황제 스스로 ‘신(*Deus*)’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여겨지
기를 기대하는 것은 하느님이라는 유일신을 숭배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황제에게 바치는 봉헌물과 신에
게 바치는 봉헌물이 다르다고 여겼으며 신으로서 도미티아누스를 섬기라는 현실
적인 명령은 불가능한 일로 여겼던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의 유일신적 신앙
은 황제숭배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한 도미티아누스는 기
독교인들의 집단적인 황제숭배거부에 대해 명목적으로 로마제국과 자신을 보호
하기 위해서 당시 비주류에 속한 기독교인들에 대해 탄압을 가했던 것이다.

2. 유대인 세금 납세 거부

로마시기에 유대인 세금(*fiscus Iudaicus*)은 로마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
들에게 부과된 세금이며 해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성전에 반 세겔(*Shekel*)¹⁰⁴⁾
을 납세할 의무가 있었다.¹⁰⁵⁾ 수에토니우스는 “유대인세금은 유대지역 유대인들
에게 부과어진 세금이다”¹⁰⁶⁾고 전하고 있으며 반면에 디오 카시우스는 “유대인
세금은 조상대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한정적
으로 부과어진 세금이었다”¹⁰⁷⁾고 말하고 있다. 예루살렘성전에 바치던 유대인

103) P. McCormick, "Domitian part II", p.134.

104) 이스라엘의 무게단위이자 화폐단위. 한 세겔은 약 11.42g에 해당하는 무게를 의미하는 단위였고 화폐의
가치를 나타내는 단위로도 사용되었다. 한 세겔은 로마제국의 4테나리우스에 해당하는 가치로 통용되었다.
따라서 성전세로 납부되던 반 세겔은 2테나리우스에 해당하였다(Stegemann, *The Jesus Movement: a
social history of its first century*, p. 115).

105) Josephus, *Bellum Judaicum*, 7.218.

106) Suetonius, *Domitianus*, 12.2.

107) Dio Cassius, *Historia Romana*, 66.7.

세금은 기원전 70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시기에는 파괴된 카피톨리아(Capitoline) 신전의 재건과 향후 관리를 위한 재정확보 목적으로써 예루살렘성전이 아닌 로마제국에 납세하는 세금으로 전환되었다.¹⁰⁸⁾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 7.218에서 베스파시아누스의 유대인 세금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유대 지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반 세겔을 바치던 것과 마찬가지로 매년 2드라크마(Drachmas)¹⁰⁹⁾를 카피톨리아 언덕에 있는 유피테르 신전에 바치도록 명령하였다.¹¹⁰⁾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세에 해당되었던 유대인 세금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써 전환된 이유는 유대인들의 반란 때문이었다. 즉 유대인 세금은 기원후 66년부터 70년까지 유대반란으로 인해 약 5년 동안 유대지역의 유대인들로부터 어떠한 세금도 거둬들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막대한 반란진압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이를 보상받기 위한 일종의 ‘배상금’적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다.¹¹¹⁾

한편 도미티아누스가 황제 즉위 후 시행한 유대인 세금정책은 자신의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의 유대인 세금정책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수에토니우스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전』에서 도미티아누스의 유대인 세금정책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도미티아누스는 특히 유대인에게 잔혹하게 세금을 거두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가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고 속이는 사람들이나 유대교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처럼 사는 사람들은 고발을 당했다.

108) F. Steiner, "Domitian and The Jewish tax", *Historia* Vol. 31(1982), p. 333.

109)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은화이다. 2드라크마의 무게는 8.6g이며 이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세로 내던 반 세겔과 동등한 가치를 지녔다. 뿐만 아니라 기원후 1세기의 2드라크마는 로마제국의 2테나리우스와 동등하게 통용되었다. 따라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세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2드라크마는 로마제국의 2테나리우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아가페성경사전편찬위원회, 『아가페 성경사전』 (아가페출판사, 1991), p. 349).

110) 스테이너(F. Steiner)는 "베스파시아누스의 유대인 세금정책은 20세에서 50세 사이의 모든 유대 남성들에게 매년마다 반 세겔(2드라크마 또는 2테나리우스)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전통적인 유대교 성전세를 몰수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강조한다(F. Steiner, "Domitian and The Jewish tax", p. 332).

111) 김학철,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않는가? -마태복음 17:24-27에 나타난 마태공동체의 납세와 로마의 지배체제-」 『신약논단』 Vol. 13(2006), p. 604.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나는 어렸을 때 사람들로 붐비는 로마의 법정에서 황제 소속 관리가 유대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90세의 할아버지에게 할례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광경을 본 적이 있다.¹¹²⁾

이상의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유대인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유대인들이나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한 것을 엿 볼 수 있다. 도미티아누스는 유대인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들을 붙잡아 들었으며 그들을 탈세범으로 기소하였다. 이렇게 기소된 자들 중에 신앙을 버리거나 유대교 개종자로 혹은 배교자로 낙인찍히는 사례도 있었다.¹¹³⁾ 또한 할례는 배교자들에게 사회적 장애로 여겼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배교자들은 로마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그들의 할례를 숨기기도 하였다.¹¹⁴⁾ 유대인 세금을 기피하였다는 이유로 인해 기소된 남자들 중에서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나체로 법정 앞에서 서있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¹¹⁵⁾

전통적인 유대인 세금은 모든 유대인들에게만 부과되었던 세금이었다. 하지만 도미티아누스의 유대인 세금정책 강화로 인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인임을 감추거나 유대교적 생활방식을 은밀하게 따르는 유대교 개종자들에게도 똑같이 유대인 세금납부자로 지정하여 유대인 세금을 납부하게 만들었던 것이다.¹¹⁶⁾

기원후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대다수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유대인 혈통의 상징인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유대인 세금정책은 납세자의 범위를 '유대지역'에 사는 '유대인들'로만 제한했기 때문에 유대지역의 박해를 피해 로마시를 비롯한 전 지역으로 이동한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 세금은 문제될 것이 없었다. 하지만 도미티아누스의 유대인 세금정책이 로마제국의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유대인으로 태어나 할례를 받은 기독교인들에게까지도 유대인 세金的 납세자로 지정된 것이다.

이처럼 납세자의 범위가 확대된 도미티아누스의 유대인 세금정책으로 인하여

112) Suetonius, *Domitianus*, 12.2.

113) Suetonius, *Domitianus*, 12.2.

114) F. Steiner, "Domitian and The Jewish tax", p. 338.

115) Suetonius, *Domitianus*, 12.2.

116) F. Steiner, "Domitian and The Jewish tax", p. 331.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유대인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스몰우드(E. M. Smallwood)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었으며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습관으로 인해 도미티아누스는 그들에게 유대인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¹¹⁷⁾라고 지적한다. 또한 슈테케만도 “공식적 차원에서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으나 유대교적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유대인 출신이라는 사실을 은밀히 감추는 방법을 통해 지금까지 유대인에게 별도로 부과된 세금을 회피하였던 사람들도 이제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말한다. 즉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적 삶의 방식을 추종하여 살거나 혹은 유대인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사람으로 지목되어 유대인 세금을 내게 되었던 것이다.¹¹⁸⁾ 따라서 도미티아누스의 유대인 세금강화정책으로 인해 기존의 유대인 세금납세자 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¹¹⁹⁾ 브루스(H. Bruce)는 “원래 베스파시아누스가 시행했던 유대인 세금은 로마제국의 동쪽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만 부과되던 세금이었지만 도미티아누스가 유대인 세금을 로마제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까지 확대 징수하였다”¹²⁰⁾고 강조한다. 따라서 로마 제국 내에서 할례를 받았거나 여전히 유대교적 생활방식을 갖고 생활을 해오던 기독교인에게까지 유대인 세금이 확대되어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도미티아누스는 기존의 유대인 세금의 납세자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대대적인 재원확보에 나섰다. 즉 도미티아누스의 300테나리우스의 군인봉급 인상과 과도하게 실시한 대중행사 및 건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정고갈을 충당하기 위해 유대교적 생활방식을 추종하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유대인 세금을 확대시켰던 것이다. 이에 관해 수에토니우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많은 대중 행사를 개최하고 병사들의 봉급을 인상한데다가 새로운 건설 공사까지 시작하면서 재원이 고갈되자 도미티아누스는 온갖 부정과 착취 수단을 동원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고발이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재산 몰수형을 내렸다. 이미 죽은 사람의 경우라도 상관하지 않았다.¹²¹⁾

117) E. M. Smallwood, "The Jew under Roman rule", *Journal of Roman Studies* Vol. 4(1963), p. 376.

118) Stegemann, *The Jesus Movement: a social history of its first century*, 330.

119) *Ibid.*, p. 330.

120) H. Bruce, "Nerva and the ficus Iudaicus",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Vol. 96(1964), p. 34.

이상의 언급은 도미티아누스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위하여 무리하게 인상한 병사들의 급여¹²²⁾와 과도하게 실시한 대중행사 및 건축공사 등으로 인하여 고갈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모습을 엿 볼 수 있다. 이러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도미티아누스는 해마다 막대한 금액¹²³⁾이 건히는 유대교 성전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으며, 유대인 세금의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세금징수를 강화해 나갔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에 의해 재건된 카피톨리아 신전이 기원 후 80년에 화재로 인해 다시 소실되었다. 따라서 도미티아누스는 카피톨리아 신전 재건을 위해서라도 유대인 세금의 징수를 통해 재정증대를 확보하고자 유대인세금 징수를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¹²⁴⁾

전통적으로 유대교 성전세는 하느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순수한 신앙적 표현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유대교 성전세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자치행정 및 각종 공공지출에 사용되는 세금이었다. 나아가 유대교 성전세는 매일 거행하는 유대교 제의비용 및 성전에서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는 관리들의 생계비 및 예루살렘의 행정비용과 구휼사업에 지출되는 세금이었다.¹²⁵⁾ 초기 기독교 사회사가 슈테케만은 “유대교 성전세로 지출되던 행정비용은 이스라엘 사회의 건설사업과 성벽 축조 그리고 수로사업과 같은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¹²⁶⁾ 요컨대 유대교 성전세는 유대인들의 자체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봉헌하는 성전세를 베스파시아누스의 명령에 순응하여 로마제국에 바쳤다는 점이다. 이는 로마제국의 유대인 세금정책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하느님 숭배사상과 유대민족 고유의 관습 및 문화를 로마정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던 것이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도미티아누스의 황제 즉위 후 강화된 유대인 세금정책에 대해 반발하지 않았다. 도미티아누스가 실시한 유대인 세금정책은 세금액수를 늘린 것이 아

121) Suetonius, *Domitianus*, 12. 1.

122) 수에토니우스는 도미티아누스가 로마 군단병들에게 봉급으로 300테나리우스를 지급하였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기존의 로마 군단병들이 봉급으로 받고 있었던 225테나리우스에서 75테나리우스가 인상된 액수였고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였다고 강조한다(Suetonius, *Domitianus*, 7.3).

123) 사회사가 슈테케만에 따르면 요세푸스의 기록을 근거로 당시 이스라엘 헤롯 왕가의 성전세 수입은 최소한 1,000탈렌트(talent)에 달했던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그 후계자들 또한 900탈렌트 이상 그리고 헤롯 아그립바 1세의 수입은 무려 1,200탈렌트에 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헤롯 아그립바 1세의 성전세 수입이었던 1,200탈렌트는 기원후 1세기 로마제국의 7,200,000테나리우스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금액이었다(Stegemann, *The Jesus Movement: a social history of its first century*, p. 111).

124) F. Steiner, "Domitian and The Jewish tax", p. 339.

125) Stegemann, *The Jesus Movement: a social history of its first century*, pp. 124.

126) Ibid., pp. 124.

나라 실질적으로 유대인과 흡사한 행동을 하면서 유대교 성전세를 내지 않았던 기독교인에게 유대인 세금을 부과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갈된 재원을 충당하고자 실시된 도미티아누스의 유대인 세금정책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납세자의 범주에 포함되어 유대인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것이다. 즉 유대교적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유대인 출신이라는 사실을 은밀히 감추는 방법을 통해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별도로 부과된 세금에서 면제되었던 사람들의 범주에 해당되어 유대인 세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¹²⁷⁾

요세푸스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¹²⁸⁾ 로마제국이 징수된 유대인 세금을 유피테르 신에게 봉헌한다고 공표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로마로 바쳐지는 유대인 세金的 납부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였다.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세금납부를 거부하는 행동은 로마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유대인 세금정책을 거부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유피테르 신에게 바쳐지는 봉헌금적 성격을 갖는 가치를 무시하는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로마법에서 신성모독(*asebeia*)이라는 개념이 대역죄를 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중죄이자 도미티아누스의 강력한 전체적 통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다.¹²⁹⁾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도미티아누스의 유대인 세금 정책을 전면적으로 거부하였던 사실은 단순히 납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독교인들에게 납세의 덕목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몸소 실천하고 가르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¹³⁰⁾ 기원후 57년 말엽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신을 통해 기독교인들에게 납세가 잘 지켜지도록 다음과 같이 권면(勸勉)하고 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가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권세는 모두 하느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¹³¹⁾

127) Stegemann, *The Jesus Movement: a social history of its first century*, p. 329.

128) Josephus, *Bellum Judaicum*, 7.218.

129) Stegemann, *The Jesus Movement: a social history of its first century*, p. 330.

130) 기원후 65년경에 기록된 마태복음 17장 24-27절에서는 가버나움의 세리들이 예수와 제자 베드로에게 각 각 은화 한 세겔의 세금납부를 요구하였고 이에 직접 예수께서 베드로의 세금까지 포함하여 은화 한 세겔을 납부하셨으며 베드로에게 관세와 국세를 막론하고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성서원 성경편찬위원회, 『마태복음』, p. 29).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에게 납세의 개념은 준수되어야 할 덕목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점에 관해 유세비우스는 『교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도미티아누스황제는 고발당한 기독교인들에게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무엇이 있으며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9000테나리우스의 가치를 해당하는 땅을 갖고 있으며 그 땅을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내야 할 세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¹³²⁾

이상의 기록으로 인해 도미티아누스에게 잡혀온 기독교인들이 땅을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할 비용뿐만 아니라 세금납부 비용을 마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도미티아누스 시대에까지 기독교인들의 세금납부 준수정신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더욱이 주목해야 할 점은 유대인 세금의 액수가 목숨을 희생할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점이다. 출애굽기 30장 13절의 기록과 요세푸스와 랍비전송이 확인해 주고 있는 것처럼 유대교 성전세는 2드라크마였고 이것은 은화 반 세겔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은화 반 세겔은 로마제국의 2테나리우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당시 로마제국의 일용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테나리우스였다는 점¹³³⁾을 감안한다면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2테나리우스에 불과한 유대인 세금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이유는 단순히 세금액수가 문제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독교인들이 도미티아누스의 유대인 세금 정책을 거부한 이유는 세금납부문제보다는 순수하게 신앙적 요인과 결부된 행동으로 여겨진다.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환난과 고난을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¹³⁴⁾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하느님만을 경배하는 신앙적 공동체로 구성된 자들이었다. 따라서 믿음으로 형성된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의 유피테르 신에게 바치는 봉헌금의 내용으로 변질된 유대인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

131) 성서원 성경편찬위원회, 『로마서』, p. 257.

132) Eusebius Pamphilus, *Historia Ecclesiastica*, 3.20.

133) 2010년 현재 대한민국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은 일용 노동자의 표준임금을 8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원후 1세기의 로마제국 일용 노동자의 표준임금이 1테나리우스였으므로 유대인 세금액수로 정해진 2테나리우스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치로 환산하였을 때 16만원에 해당되는 것이다.

134) 성서원 성경편찬위원회, 『마태복음』, p. 41.

일 수 없는 행위였던 것이다.

유대교 성전세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납세해왔던 종교세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종교세는 해마다 봉헌하는 유대교 성전세, 땀 나무 비용, 과일 및 가축 등의 첫 열매, 제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십일조 그리고 그 외의 일체 수입에 대한 십일조 봉헌을 포함하고 있다.¹³⁵⁾ 따라서 유대인들이 납부하던 전통적인 종교세의 개념은 철저히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봉헌하던 세금인 것이다. 이는 곧 종교세 자체가 하느님께 드리는 예물이자 동시에 하느님만을 향한 경배와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로마인들은 “통치한다는 것은 곧 세금을 거둔다는 것”으로 생각했고 많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이방제신들을 향해 납세한다는 것은 하느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신앙과 배치되는 것으로 여겼다.¹³⁶⁾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종교세 납부의미 자체가 하느님을 향한 신앙 고백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유피테르 신을 향한 봉헌금으로 변질된 유대인 세금의 납부는 전면적으로 거부되어 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통치자의 시각에서 본다면 로마 황제에 대한 모독이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의 권위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도미티아누스로서는 기독교인들을 대역죄에 해당하는 반역의 무리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세금 납세거부는 결국 네로 박해¹³⁷⁾ 이후 일어나지 않았던 기독교 박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¹³⁸⁾

윌리엄스(M. H. Williams)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 세금 집행과 이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의 저항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¹³⁹⁾고 강조한다. 슈테케만 역시 “유대인 세금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의 태도가 도미티아누스로 하여금 기독교인을 박해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¹⁴⁰⁾고 주

135) Stegemann, *The Jesus Movement: a social history of its first century*, p. 114.

136) John H. Kautsky, *The Politics of Aristocratic Empire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2), p. 150.

137) 타키투스의 『연대기』 15.44에서 다음과 같이 네로 박해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네로는 대화재의 소문을 수습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기독교인들은 조롱을 받으면서 처형되었다.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그들을 야간에 십자가에 묶어 놓고 등불 대신 불태웠다. 네로는 이 구경거리를 위해 카이사르 가의 정원을 제공하였다. 게다가 전차 경기까지 개최하고 그 사이에 전차 모는 사람으로 가장하고 민중 사이를 돌아다니거나 스스로 직접 전차를 몰았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한 개인의 잔인하고 광적인 행위로 인해 희생을 당하는 사람으로 동정을 받았다.”

138) F. F. Bruce, *The Spreading Flame* (Eerdmans, 1992), p. 343.

139) M. H. Williams, "Domitian, The Jews and the 'Judaizer' - A Simple Matter of Cupiditas and Maiestas?" *Historia*, Vol. 39(1990), pp. 198.

장한다.

도미티아누스의 뒤를 계승한 네르바(Nerva, 기원후 96-98)는 황제 즉위 후 곧 유대인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체포를 중지하였고 이와 관련된 모든 부당한 대우를 철회하였다.¹⁴¹⁾ 이에 관해 유세비우스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도미티아누스가 15년 동안 통치한 뒤 네르바가 그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되었을 때, 로마 원로원은 도미티아누스가 수여한 작위를 취소하고 추진했던 정책들을 폐지하며 과거 부당하게 축출되었던 사람들을 고향으로 귀환시키고 부당하게 몰수하였던 재산도 되돌려준다는 포고령을 발표하였다.¹⁴²⁾

이상의 유세비우스의 기록에서 네르바의 즉위와 동시에 도미티아누스의 정책들이 폐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네르바의 즉위와 동시에 로마제국의 최고 의결기관인 원로원에서 도미티아누스의 유대인 세금정책이 폐지되었다는 사실은 도미티아누스 치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세금정책으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와 박해를 받았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도미티아누스의 유대인세금 정책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부과되었던 세금을 기독교인들에게까지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에게까지 과세자의 범위를 확대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유대인 세금 기피자나 납세 거부자는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유대인세금 납세거부는 황제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그들을 대역죄인으로 간주하여 박해를 받았던 것이다.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유대교 성전세는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되자마자 황위를 계승한 로마의 오현제 중 한 사람인 네르바에 의해 즉시 폐지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도미티아누스의 유대교 성전세 징수가 얼마나 많은 폐해를 불러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140) Stegemann, *The Jesus Movement: a social history of its first century*, p. 329.

141) F. Steiner, "Domitian and The Jewish tax", p. 329.

142) Eusebius Pamphilus, *Historia Ecclesiastica*, 3.20.

3. 제신숭배 거부

로마인들은 일찍부터 동방인들과의 교류 속에서 많은 동방의 전통 신들을 로마로 들여왔다. 그 대표적인 신들 중에는 이집트에서 유입된 이시스(Isis)와 그녀의 배우자 오리시스(Orisis)가 있고 페르시아에서 유입된 광명의 신 미트라(Mithra)등을 들 수가 있다. 또한 동방의 황제숭배사상이 로마에 들어오기도 하였다.¹⁴³⁾ 그 외에도 그리스에서 많은 신들이 유입되었다.¹⁴⁴⁾ 이처럼 주변지역에서의 신들의 유입으로 인해 로마는 마치 수많은 이교신들의 전시장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었으며 종교적으로 혼합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원후 1세기에 로마로 유입된 기독교는 로마제국의 국가 제신들에 대한 공적예배(公的禮拜) 문제로 로마제국과 자주 충돌하였다. 로마인들이 신봉하는 제신(諸神)은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신앙을 위반하는 우상숭배였기 때문이다.¹⁴⁵⁾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 황제들은 자신의 관대한 통치 아래에서 수많은 로마의 종교들이 존속할 수 있도록 돌보아주고 있었다. 하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만은 예외였다. 그들은 자기 종교 이외의 모든 종교를 불경스러운 우상종교로서 비난하였기 때문이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⁴⁶⁾

또한 도미티아누스는 로마의 옛 종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것을 열렬히 숭배하였다. 그는 옛 종교와 신전들을 복원하였고 제신들에 대한 예배를 강화시켰다. 또한 그는 스스로를 유피테르, 미네르바(Minerva), 마르스, 베누스, 넵투누스(Neptunus), 베스타(Vesta), 케레스(Ceres)신 등의 수호자로 선포하였다.¹⁴⁷⁾ 이러한 도미티아누스의 적극적인 제신숭배행위에 관해 당시의 사가 수에토니우스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43) K. M. Setton & Winkler, *Great Problems in European, Civilization* (Prentice-Hall International, 1966), pp. 45-46.

144) 즉 월신 다이아나(Daiana), 군신 마르스(Mars), 상업신 메르쿠리우스(Mercurius), 신들 중의 최고신인 유피테르, 미의 신 베누스(Venus), 농업의 신 새턴(Saturn), 태양신 솔(Sol)과 불의 신 베스타(Vesta), 식량생산을 주관하는 페나테스(Penates), 가정의 신 야누스(Janus), 출산을 주관하는 신 루키나(Lucina), 유방의 신 루미나(Lumina), 술의 신 바코스(Bacchos) 등이 유입되었다. 월신 다이아나는 그리스의 아르테미스(Artemis), 군신 마르스는 그리스의 아레스(Ares), 상업신 메르쿠리우스는 그리스의 헤르메스(Hermes), 최고의 신 유피테르는 그리스의 제우스(Zeus), 미의 신 베누스는 그리스의 아프로디테(Aphrodite), 농업의 신 새턴은 그리스의 사투르누스(Saturnus), 태양신 솔은 그리스의 헬리오스(Helios), 불의 신 베스타는 그리스의 헤스티아(Hestia), 술의 신 바코스는 그리스의 디오니소스(Dionisos)신 등으로 칭해진다(John Ferguson, *The Religions of the Roman Empire* (Cornell University Press, 1979), p. 211).

145) 조인형, 「콘스탄티누스대제의 기독교로의 개종배경」, 『서양고대사연구』 Vol. 4(1996), p. 152.

146) Edward Gibbon,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Vol. I. p. 296.

147) Suetonius, *Domitianus*, 5.1.

도미티아누스는 통치기간 내내 프라이네스테(Praeneste)에 있는 운명의 여신에게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빌었다. 도미티아누스는 또한 자신이 숭배해 마지않던 미네르바가 제단에서 홀연히 나타나는 꿈을 꾸기도 하였다.¹⁴⁸⁾

이상의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도미티아누스가 열성적으로 로마의 제신들을 숭배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이 숭배하는 로마의 모든 제신들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 자신이 섬기는 하느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하거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기독교 복음전도에 총력을 기울였던 자들이다. 특히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호받고 성장해왔던 이교도들은 로마의 제신들을 인정하며 서로 공존체제를 취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이들 집단의 미움까지 받아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에드워드 기번(E. Gibbon)은 이에 대해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가족, 도시, 지방의 미신을 경멸하고 배척했으며 이와 같은 행동은 이교도들로부터 비난을 사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⁴⁹⁾

당시의 이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상당히 적대시하고 있었다는 점은 타키투스의 증언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¹⁵⁰⁾ 기독교인들이 유난히 적대적 대상이 된 점에 관해서 타키투스는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그들의 비-로마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유대 지방의 총독 빌라도(Pontior Pilatos)에 의하여 처형당한 유대인 반란자 예수의 추종세력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또한 기독교인들의 재판에서 집행관직을 맡았던 플리니우스(Gaius Plinius)의 편지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교도들의 적대감을 살펴볼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전체적으로 파괴적인 이국 미신에 미쳐있었다. 이 미신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 로마의 종교 상황에 걱정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므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로마의 종교 정책 및 도덕 정책에 준하여 처벌받을 만한 자들이다.¹⁵¹⁾

148) Suetonius, *Domitianus*, 15.3.

149) Edward Gibbon,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Vol. I. p. 296.

150) Tacitus, *Annales*, 15.44.

151) Suetonius, *Nero*, 16.2.

이상의 내용에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이교도들의 태도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요컨대 이교도들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제국을 위협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는 파괴적인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이다. 또한 플리니우스가 기독교를 로마제국에 걱정스러운 결과를 안겨다 줄 종교로 보고 있는 점과 기독교인들이 파괴적인 이국미신에 미쳐있다고 표현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플리니우스가 기독교에 대해 상당히 적대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플리니우스의 증언은 당시 기독교인들이 로마재판에서 불리한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로마인들 또한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배타성이 제신의 선의(善意)를 멀리하고 또 로마인들이 말하는 “신들의 평화(*Pax Deorum*)”를 해치며 로마사회가 입은 재해에 책임이 있다고 믿었다.¹⁵²⁾ 요컨대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이교도의 종교제 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제신을 숭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간섭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교도의 적대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¹⁵³⁾ 이처럼 이교도들에게 종교제의를 참석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기독교인들의 태도는 이교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한 적대적인 행동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기독교인인의 태도가 이교도들의 비난과 고발을 초래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와 관련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바울이 에페수스에서 기독교 전파를 하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소동이 일어났다. 에페수스에 데메트리오스라는 은장이가 있었는데 그는 은으로 아르테미스 신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장인들에게 많은 돈벌이를 시켜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격분하여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 직업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바울이라는 자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에페수스뿐만 아니라 거의 온 도시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유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이 곤란한 처지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위

152) 지동식, 『로마제국과 기독교』(한국신학연구소, 1980), p. 147.

153) Ibid., p. 149.

대한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고 마침내 이 여신께서 위엄마저 상실하실 위험에 놓여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에페수스 사람들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시다!”라고 외쳤다.¹⁵⁴⁾

이상의 일화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해 이교도들이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교도들의 경제활동에 기독교인들이 손실을 입혔다는 점이다. 맥 코르믹은 “이교도들이 실시하는 종교제의에 참석을 거부하라고 설득하는 기독교인들의 태도가 이교도들의 봉헌물과 종교 용품 구입 등의 경제활동을 감소시켰다”¹⁵⁵⁾라고 강조한다. 기독교인들의 전교행위(傳敎行爲)는 이교도들에게 재정적인 손실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제 상권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 되었다. 이는 결국 로마제국의 세금수입과 경제면에 손실이 초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교도들은 기독교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피해를 궁극적으로 로마제국의 신을 모욕한 죄로 돌렸던 것이다. 따라서 이교도들은 신성모독죄로 기독교인들의 처벌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극단적인 제신거부행위는 도미티아누스가 극진하게 숭배했던 로마의 제신들을 모독하는 대역죄에 해당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종교를 파괴하려는 행동으로 받아들여 졌다. 이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크나큰 모욕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경제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교도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 빈번한 고발과 비난을 가했으며, 이러한 이교도들의 태도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자극시켜 결국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로마제국의 제신숭배를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인해 도미티아누스로부터 신성모독죄와 무신론자로 비난받아 박해를 받게 되었다. 이에 관해 디오 카시우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의 조카이면서 원로원의 집정관이었던 플라비우스 클레멘스(Flavius Clemens)를 처형했고 그의 부인 도미틸라(Flavia Domitilla)를 판다테리아(Pandateria)로 추방시켰다. 그들은 ‘무신론자’라는 죄목으로 고발을 당했는데 이 죄목에 근거하여 ‘다른

154) 성서원 성경편찬위원회, 『사도행전』, p. 221.

155) P. McCormick, “Domitian part II”, p. 138.

사람들’, 즉 기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일부는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몰수당했다.¹⁵⁶⁾

위와 같은 디오 카시우스의 언급을 통하여 도미티아누스가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조카이자 집정관이었던 클레멘스와 그의 부인 도미틸라를 추방죄로 처벌하였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도미티아누스가 로마제국의 집정관이자 자신의 조카였던 클레멘스와 그의 부인 도미틸라를 ‘무신론자’라는 죄목으로 추방시켰다는 점은 로마제국의 제신들을 비판하고 숭배를 거부한 신성모독죄가 도미티아누스 치세의 로마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대역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슈테케만은 “로마제국에서 ‘무신론자’는 로마의 제신들을 믿지 않고 숭배를 거부하거나 비판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개념으로서 이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대역죄를 의미하는 것이다”¹⁵⁷⁾라고 언급한다. 따라서 로마의 제신들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고 비판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도미티아누스로부터 박해받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는 어떠한 형태로 실시되었는가? 도미티아누스는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거나 유배시키는 형벌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재산형(財産刑)과 고문형도 부과하였다.

디오 카시우스의 언급과 마찬가지로 수에토니우스 또한 『도미티아누스 황제전』에서 원로원 집정관을 처형한 사례가 언급되고 있다.

도미티아누스는 사촌 플라비우스 클레멘스(Flavius Clemens)를 죽였다. 그가 집정관직을 마치고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¹⁵⁸⁾

위의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은 디오 카시우스의 언급과 마찬가지로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집정관이었던 로마 최고위 관료인 동시에 친족을 사형시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즉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는 로마의 최고의결기관인 원로원에서 선출된 이른바 ‘세속권력’의 대리인이자 ‘최고행정권(imperium)’을 가진 집정관임에도 불구하고 도미티아누스는 관료 및 친족을 가리지 않고 기독교인이면 누구든지 박해하였던 것이다.

156) Dio Cassius, *Historia Romana*, 67.14.

157) Stegemann, *The Jesus Movement: a social history of its first century*, p. 330.

158) Suetonius, *Domitianus*, 15.1.

유세비우스는 다음과 같이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도미티아누스의 혹독한 난폭성에 의해 희생되었다. 로마에서는 천부적으로 출중하고 박식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정한 재판도 없이 잔인하게 처형되었으며 재산이 몰수당했다. 마침내 그는 하느님께 대한 적개심과 그분을 거스르는 사악함으로 네로의 후계자임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그의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떠한 박해도 행하지 않았지만 도미티아누스는 박해를 가한 두 번째 인물이었다.¹⁵⁹⁾

이처럼 로마제국의 제신들의 신성을 비판하고 숭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의 행동은 도미티아누스로부터 잔인한 처형과 재산몰수 등의 다양한 형태로 처벌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재산몰수 형벌에 관해 유세비우스는 『교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15년간의 도미티아누스 집권이 끝난 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유배당한 자들은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도미티아누스로부터 빼앗겼던 재산을 다시 돌려받았다.¹⁶⁰⁾

유세비우스는 『교회사』에서 시몬에 관한 박해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도미티아누스 치세에 제국의 어느 도시에서는 간헐적으로 박해가 발생했다는 확실한 전승이 있다. 그 박해 도중에 예루살렘의 2대주교로 뽑힌 클로파스(Clopas)의 아들 시몬은 후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진다. 시몬은 며칠간 계속되는 고문 중에도 그리스도를 증거 하였는데 120살의 노인이 그 모진 고문을 견디어 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결국 그는 십자가형에 처해졌다.¹⁶¹⁾

이상의 기록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120살에 해당하는 시몬에게 며칠 동

159) Eusebius Pamphilus, *Historia Ecclesiastica*, 3.17.

160) Eusebius Pamphilus, *Historia Ecclesiastica*, 3.20.

161) Eusebius Pamphilus, *Historia Ecclesiastica*, 3.32.

안 고문을 실시하고 십자가형에 처한 정황은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가 나이를 불문하고 행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로마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국 전체에서 행해졌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유세비우스는 『교회사』에서 사도 요한이 받은 박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도미티아누스 통치기에 예수의 사도이며 요한복음서 저자인 요한이 생존해 있었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밧모섬(Patmos)에 수감되었다. 그가 저술한 요한계시록은 아주 오래 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도미티아누스 통치 거의 말년에 있었던 것이다.¹⁶²⁾

이상의 유세비우스의 기록에서 사도 요한을 로마에서 수 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그리스 에게 해의 밧모섬으로 유배시켰다는 점은 결코 가벼운 형벌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문형에 관해 수에토니우스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전』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도미티아누스는 죄수의 생식기를 태우는 새로운 고문 기술을 개발하여 여전히 은신하고 있는 나머지 정적들과 죄수들의 행방을 캐내곤 했다. 그는 또한 수많은 죄수들의 손을 잘랐다.¹⁶³⁾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도미티아누스 치세에 기독교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문과 형벌을 받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심지어 도미티아누스 통치 시기까지도 예수집안의 사람들이 살아있었는데 이들은 주님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앞에 끌려왔던 것이다.¹⁶⁴⁾

이처럼 도미티아누스의 신분과 연령 그리고 남녀노소를 구분 하지 않은 잔인한 박해는 도미티아누스 사후 로마 대중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샀다. 수에토니우스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전』에서 도미티아누스 사후의 대중들의 모습을 다음

162) Eusebius Pamphilus, *Historia Ecclesiastica*, 3.18.

163) Suetonius, *Domitianus*, 10.5.

164) Eusebius Pamphilus, *Historia Ecclesiastica*, 3.20.

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일반 대중은 도미티아누스의 죽음을 무관심으로 대했고 원로원 의원들은 기쁨으로 화답하였다. 그들은 원로원 건물에 모여서 죽은 도미티아누스를 호되게 비난하고 신랄한 모욕을 가했다. 그런 다음 사다리를 가져오게 하여 눈앞에서 그의 방패와 조각상들을 떼어 내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언급된 모든 비문을 지워 버리며 그의 통치에 관한 모든 기록을 말소한다는 포고령을 내렸다.¹⁶⁵⁾

이와 같은 수에토니우스의 언급과 마찬가지로 크리스토퍼 또한 도미티아누스가 사후에 받았던 기록말살형벌의 내용에 관하여 “도미티아누스의 조각상은 모두 파괴하고, 모든 공식적인 기록과 비문, 통화에서 도미티아누스의 이름을 삭제하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자손은 대대로 ‘임페라토르’를 사용할 권리를 박탈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치세 중에 선포된 칙령은 모두 폐기하는 포고령을 원로원이 내렸다”고 강조한다.¹⁶⁶⁾ 따라서 도미티아누스는 그의 치세 중에 행한 폭군적인 통치로 인하여 사후에 가혹한 기록말살형벌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유세비우스는 『교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5년간의 도미티아누스 집권이 끝난 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도미티아누스로부터 박해를 받아 유배되었던 자들은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도미티아누스에게 몰수당했던 자신들의 재산을 돌려받았다.¹⁶⁷⁾

이러한 수에토니우스와 유세비우스의 묘사를 통하여 도미티아누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잔인한 박해를 가했고 그 결과 대중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받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를 유발시킨 요인 중의 하나는 도미티아누스의 종교사상과 충돌되는 기독교인들의 극단적인 제신거부 행위였다. 기독교인들은 로마인들이 신봉하는 제신을 우상숭배로 여겨 도미티아누스의 제신숭

165) Suetonius, *Domitianus*, 23.2.

166) Scarre Christopher, *Chronicle of the Roman emperors*, p. 83.

167) Eusebius Pamphilus, *Historia Ecclesiastica*, 3.20.

배 종교정책을 전적으로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도미티아누스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분, 친족,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로 박해를 하였던 것이다.

4. 기독교의 만인평등사상

도미티아누스 통치기에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로마사회의 하층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다. 하층계급으로써 귀족집단으로부터 갖은 멸시를 받았던 기독교인들은 당시 상층계층에서 용인되지 않은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상¹⁶⁸⁾을 받아들였다. 예로부터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¹⁶⁹⁾ 만인평등사상에 입각한 전교행위를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독교인의 만인평등사상은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로마제국의 귀족집단은 로마 황실과 600명의 원로원 의원 그리고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로마제국에서 기사들의 인원은 대략 2만 명이었으며 원로원 의원들과 이들이 소유한 재산은 최저 40,000,000데나리우스에 달했다.¹⁷⁰⁾ 동시에 그들은 대토지 소유자들이었으며 주로 자신들이 소유하는 농경지를 통해 들어오는 수입원에 의존하였다. 디오 카시우스는 “기사와 원로원 의원은 자유민 태생의 고귀한 출신과 재산의 부유함 그리고 탁월한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발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¹⁷¹⁾고 언급한다. 따라서 로마제국의 귀족집단은 원로원 의원들과 기사들에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자유민 출신의 부유한 사람들로 여겨진다.

기원후 1세기 로마사회 계층 범주에 관해 슈테케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⁷²⁾

168) 성서원 성경편찬위원회, 『골로새서』, p.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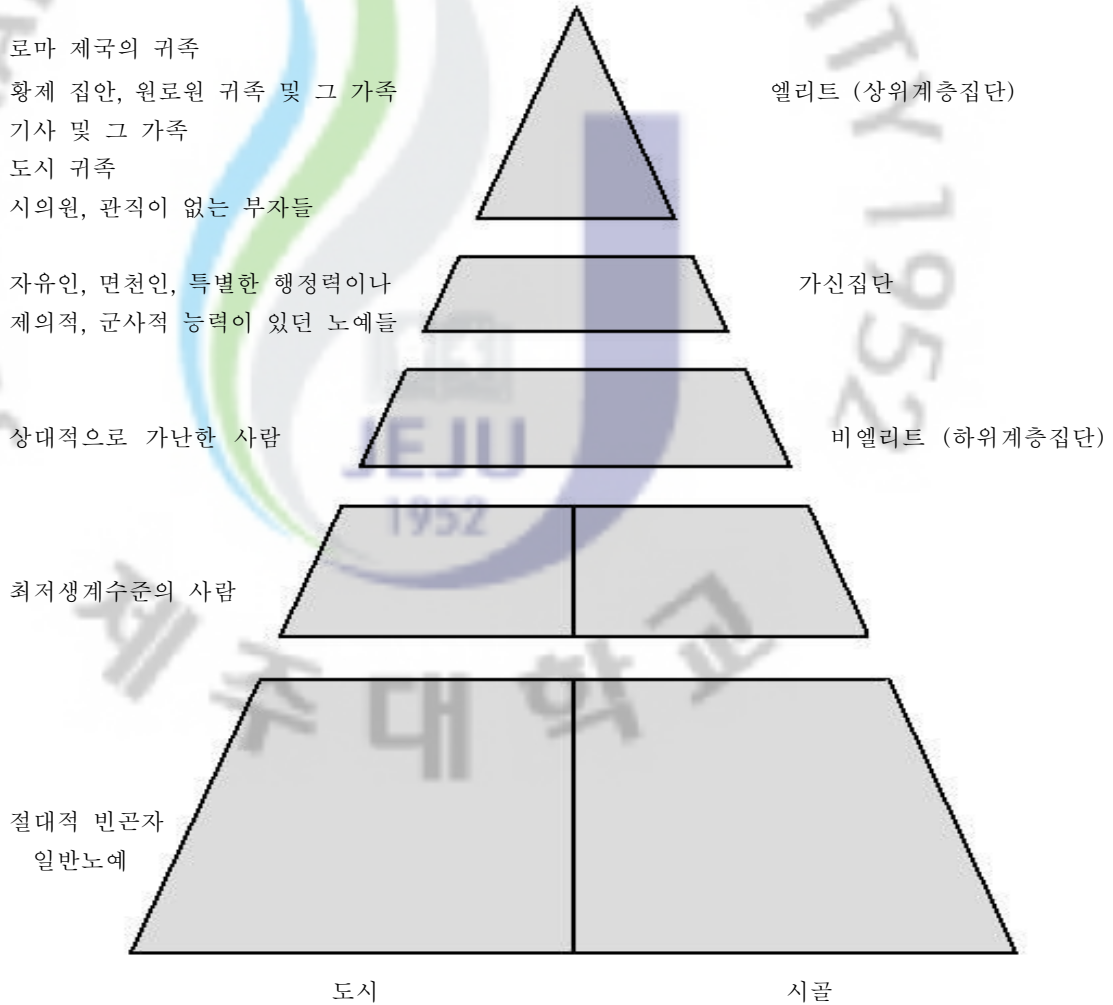
169) 기원후 65년경에 기록된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다(성서원 성경편찬위원회, 『마태복음』, p. 52).

170) Stegemann, *The Jesus Movement: a social history of its first century*, p. 131.

171) Dio Cassius, *Historia Romana*, 52.19.

172) Stegemann, *The Jesus Movement: a social history of its first century*, p. 72.

<그림 1> 기원후 1세기 로마사회 계층의 개관



이와 같은 신분구조 속에서 사상적으로 만인평등사상을 주장하였다는 사실은 로마제국에 대한 반역행위였다. 기독교인들의 만인평등 사상은 사도 바울이 기원 후 62년경에 작성한 골로새서신(Colossians)에서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인이나 유대인
이나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스키타
티아 민족이나 노예나 자유인에 대한 차별은 있을 수 없다.¹⁷³⁾

173) 성서원 성경편찬위원회, 『골로새서』, p.327.

또한 유세비우스는 『교회사』에서 다음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도미티아누스 통치시기에 신분이 미천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 젊은이는 이교도들과 어울리면서 자기를 두목으로 하는 강도 집단을 만들어 범죄를 저지르던 청년이었고 잔인성이나 폭력성이 대단하던 자였다. 하지만 이렇게 방탕하며 사악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젊은이에게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였다. 복음을 들은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탄원했다. 요한은 구세주께서 그의 잘못을 용서해주셨다고 엄숙히 맹세하며 세례를 주었다.¹⁷⁴⁾

이상의 내용에서 도미티아누스 치세에 사도 요한이 신분에 관계없이 기독교 교리를 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기독교 교리를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한 젊은이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도 또한 엿볼 수 있다. 즉 도미티아누스 통치기에 만인평등사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나아가 기독교인들의 만인평등사상에 기반을 둔 전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로마사회 내부에 노예와 자유인에 대한 평등을 강조한 기독교 사상이 하층계급집단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노예들을 소유한 귀족집단들은 기독교의 만인평등사상을 비난하여 기독교인들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에드워드 기번은 “만인평등사상을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의 태도에 대하여 로마사회의 귀족집단은 기독교인을 농민, 공장 노동자, 소년, 여인, 거지, 노예 등과 같은 사람들로 구성된 반사회적집단으로 여겨 비난하였다”고 강조한다.¹⁷⁵⁾ 더욱이 주목할 점은 도미티아누스가 노예제도에 철저한 관리정책을 펼쳤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에토니우스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전』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도미티아누스는 노예들의 거세를 엄격히 금지시켰다. 또한 노예상인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세된 노예들의 가격은 국가에 의해 통제되도록 하였다.¹⁷⁶⁾

174) Eusebius Pamphilus, *Historia Ecclesiastica*, 3.23.

175) Edward Gibbon,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Vol. I. p. 290.

176) Suetonius, *Domitianus*, 7.1.

이와 같은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서 도미티아누스가 노예의 거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거세된 노예가격을 통제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도미티아누스황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히 노예에 대한 통제를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슈테케만은 “도미티아누스의 노예 관리정책은 로마제국의 노동력 손실을 방지하고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⁷⁷⁾

또한 노예제도의 면천(免賤)과 관련된 논쟁에서 로마사회의 노예제도에 대한 로마 귀족들의 관심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사건은 도미티아누스가 늙은 노예를 자유민으로 면천해주는 정책을 추진하려던 것에 대하여 로마의 귀족들이 대대적으로 반발하면서 빚어진 논쟁인데 결국 이 정책은 추진되지 못했다. 이러한 반발의 주된 이유는 면천제도로 인해 노예 수가 감소되어 로마제국의 정치 · 경제 · 사회적인 면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뿐만 아니라 면천되어진 노예가 로마시민권을 획득하고 공공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¹⁷⁸⁾

이처럼 노예제도에 민감한 로마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기독교의 만인평등사상은 노예를 소유한 귀족들에게는 상당한 우려와 반발이 초래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만인평등사상은 노예 노동력 확보를 중시하였던 도미티아누스에게 있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사상이었던 것이다. 또한 정치 · 경제 · 종교 ·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려감과 혼란스러움을 초래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해 적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통치자 도미티아누스에게는 기독교인들이 사회전복을 꾀하는 반역의 무리로 보였던 것이다. 이에 관해 유세비우스는 『교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가문 사람들이 살아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의 형제들인 유대의 손자들이었다. 이들은 다윗 가문이라서 고발당했는데 에보카투스(Evocatus)에 의해 도미티아누스 황제 앞에 끌려왔다. 도미티아누스는 헤롯왕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려워하던 자이다. 도미티아누스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를 물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중에 나타나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고 각 사람의 행실에 따라 응분의 보상을 내릴

177) Stegemann, *The Jesus Movement: a social history of its first century*, p. 87.

178) *Ibid.*, p. 153.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룩될 나라라고 설명하였다.¹⁷⁹⁾

이상의 내용에서 도미티아누스가 예수의 형제들에게 직접 심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즉 도미티아누스 스스로가 기독교인들이 도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제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도미티아누스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제국을 전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울 반역의 무리라고 여겼던 것이다. 이에 대해 슈테케만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룩될 것이라는 기독교인들의 주장을 두려워하였으며 특히 기독교인들이 만인평등사상을 로마 전 지역에 전파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다”¹⁸⁰⁾고 강조한다. 더욱이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신분상의 차이로 평가받는 곳이 아니라 신분을 초월하여 각자의 믿음과 처신에 따라 평가와 보상을 받게 되는 평등사회인 것이다. 이처럼 로마사회에서 주로 기독교집단인 하층계층들이 평등사회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그들이 신분적으로 차별 없는 만인이 평등한 기독교 왕국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었다.

사회적으로 만인 평등사상을 강조한 기독교인들의 태도는 당시 로마 사회의 귀족집단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으며 상대적으로 핍박과 멸시에 고통 받던 하층신분의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왕국을 실현할 수 있는 희망적 생각을 불러넣어 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상은 도미티아누스와 귀족집단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반역행위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도미티아누스는 기독교의 만인평등사상에 반대하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던 것이다.

유세비우스는 『교회사』에서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는 그 잔인함에 있어서 네로에 버금가는 박해였다. 그는 네로의 박해모습과 유사한 시도를 했었다. 네로와 마찬가지로 끔찍했던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는 그가 암살된 뒤 황위를 계승한 네르바에 의해 즉시 중단되었다.¹⁸¹⁾

사료의 부재로 인해 도미티아누스 통치기에 박해받은 기독교인의 정확한 수는

179) Eusebius Pamphilus, *Historia Ecclesiastica*, 3.20.

180) Stegemann, *The Jesus Movement: a social history of its first century*, p. 335.

181) Eusebius Pamphilus, *Historia Ecclesiastica*, 3.20.

살펴볼 수 없지만 학자들은 기원후 64년 네로황제의 최초 박해로부터 기원후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황제의 마지막 박해에 이르기까지 약 250여 년간 기독교 박해로 인하여 희생된 기독교인의 수를 1100만여 명으로 보고 있다.¹⁸²⁾

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의 만인평등사상은 도미티아누스로 하여금 로마사회를 전복하고 그리스도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이러한 오해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대한 도전으로 비쳐져 기독교인들에 대해 박해를 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황제숭배정책 거부 및 유대인세금 납세 거부, 제신숭배 거부, 만인평등사상은 도미티아누스의 전제정치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로마제국의 존립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황제숭배정책을 거부하고 유대인세금 납세를 거부하는 그리고 제신숭배를 거부한 나아가 만인평등사상을 수용하여 전교활동을 펼친 기독교인들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박해를 하였던 것이다.

182) Philipp. Vandenberg, *Nero*,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최상안 역, 『네로』 (한길사, 2004), p. 319.

IV. 결 론

이상에서 고대 로마역사가들의 사료에 기반을 두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집권 배경과 통치형태 및 기독교 박해요인에 관해 도미티아누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의 명성에 가려진 도미티아누스의 황제 즉위 전의 모습과 형인 티투스의 존재로 황제즉위에 배제된 분노감으로 형성된 성격으로 인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로 즉위한 후의 변화된 통치형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논의된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 연구에 대한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유대반란을 배경으로 발생한 도미티아누스의 집권 배경과 도미티아누스의 통치 형태를 살펴보았다. 우선 도미티아누스의 집권배경에 관해서는 도미티아누스가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와 그의 형 티투스의 뒤를 이어 황제로 즉위하는 과정을 탐구하였다. 기원후 68년 네로 황제의 자살 이후 로마 제국의 혼란 속에서 유대반란 진압의 총사령관이었던 도미티아누스의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가 네로의 뒤를 이어 황제로 즉위하였다.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의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로 즉위하게 되자 자신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황위를 계승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는다. 하지만 도미티아누스는 베스파시아의 차남으로서 황제순위 서열상 형인 티투스의 존재로 인해 황제계승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티투스는 이미 유대반란 진압으로 인해 로마 대중들과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로부터 그의 역량을 인정받고 있었다. 유대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한 티투스의 역량에 반해 상대적으로 군사적 경험이 없는 도미티아누스는 로마대중들에게 그의 형 티투스보다 못한 인물로 투영되어 스스로 위축되고 열등감을 가졌다. 나아가 그는 형 티투스의 황제즉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티투스 황제 즉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또한 도미티아누스는 끊임없이 형의 자리를 탐내고 황위를 차지하기 위해 갖가지 음모를 꾸미기도 하였다. 티투스의 급사(急死)로 인하여 도미티아누스는 그렇게 원하던 황제로 즉위할 수 있었다. 베스파시아누스

의 황위를 물려받은 티투스 황제는 즉위 2년 만에 후사를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며 그 뒤를 이은 도미티아누스는 기원후 81년 9월에 황제로 즉위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도미티아누스의 통치 형태에 관해서는 도미티아누스의 통치기간 중에 행해진 전제군주적인 통치와 군인봉급인상, 대규모의 공공건물 건립 및 화려한 공공 행사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도미티아누스는 기원후 81년 9월에 즉위하여 기원후 96년 9월 18일에 암살되기까지 15년간 로마제국을 통치하였다. 그 기간 동안 도미티아누스는 역대 로마황제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스스로를 ‘주인이나 신’이라는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강력한 전제 군주적인 통치를 하였다. 또한 도미티아누스는 로마 군단병들의 1년 봉급을 225데나리우스에서 300데나리우스로 인상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군인봉급 인상정책으로 인해 통화가치가 떨어져 재정 악화를 초래하였을지라도 군사적 경험과 혁혁한 공이 없었던 도미티아누스는 군인봉급인상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군인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었으며 나아가 병사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외의 대규모의 공공건물 건립 및 사치스럽고 화려한 공공 행사를 무리하게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폐지되었던 야간 행사를 부활시키면서까지 대중행사를 과도하게 개최하였다. 이와 같은 도미티아누스의 군인봉급 인상정책과 사치스러운 건축공사 및 과도한 대중행사는 재원 고갈을 야기 시켰고 이는 도미티아누스가 막대한 재원 확보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미티아누스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혹독한 세금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가 도입하였던 유대인 세금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III장에서는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요인을 황제숭배 거부, 유대인 세금 납세 거부, 제신숭배 거부, 기독교의 만인평등사상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황제숭배 거부에서는 로마인들의 황제숭배의미와 기독교인들이 황제숭배 거부의 의미를 규명해보았다. 로마제국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로 죽은 황제의 업적을 추모하여 신격화하는 것을 관행으로 삼았다. 로마인들에게 황제숭배의 의미는 황제를 향한 내면의 충성심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인 동시에 제국을 결속시키는 의식이자 황제를 향한 충성심을 표현하는 행위였던 것이다. 황

제숭배정책에 대한 로마시민들의 전통적인 인식으로 인해 황제숭배거부는 곧 로마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황제숭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로마제국의 황제숭배정책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예외로 인정받았다. 즉 율리우스 카이사르 법령에 의해 그들의 신앙과 율법 및 관습을 보호받고 있어서 황제숭배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행동을 주장하고 보호받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도미티아누스를 황제로 숭배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박해를 받았던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상숭배를 철저히 배격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신을 ‘살아있는 신(*Deus*)’으로 표방하고 숭배를 강요한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숭배정책은 기독교인들에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독교인들은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숭배정책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행동은 궁극적으로 도미티아누스에게 자신의 신성을 부정하는 모욕이자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곧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다음으로 유대인세금납세 거부에 관해서는 유대인세금의 성격과 납세자의 범위확대 이유를 고찰하였다. 도미티아누스가 실시한 유대인 세금은 원래 이스라엘의 유대교 성전세였다. 유대교 성전세는 다른 세금과는 달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금의 성격을 뜻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성전에 바치던 유대인세금은 기원전 70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시기에는 파괴된 카피톨리아 신전의 재건과 향후 관리를 위한 재정확보 목적으로써 예루살렘성전이 아닌 로마제국에 납세하도록 하였다. 유대인은 이러한 세금정책에 순응하여 유대교 성전세를 로마에 바쳤다. 로마시기에 유대인 세금은 로마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부과된 세금이었다. 하지만 기원후 90년 초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재원확보 목적으로써 납세자 범위를 확대하였다. 도미티아누스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인임을 감추거나 유대교적 생활방식을 은밀하게 따르는 유대교 개종자들에게도 똑같이 유대인 세금 납부자로 지정하여 유대인 세금을 납부하게 만들었다. 도미티아누스의 유대인 세금정책이 로마제국의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유대인으로 태어나 할례를 받은 기독교인들에게까지도 유대인 세금의 납세자로 지정되었다. 이처럼 납세자의 범위가 확대된 도미티아누스의 유대인 세금정책으로 인하여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인들도 유대인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고갈된 재원을 충당하고자 실시된 도미티아누스의 유대인 세금정책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납세자의 범주에 포함되어 유대인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유피테르 신에게 봉헌되어지는 성격으로 변질된 유대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유대인 세금의 납부는 단순한 세금 납부가 아닌 신앙을 표현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유피테르 신에게 바쳐지는 성격을 갖는 유대인 세금의 납부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유대인 세금정책을 거부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유피테르 신에게 바쳐지는 봉헌금적 성격을 무시하는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것이다. 로마법에서 신성모독은 대역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결국 유대인 세금납세 거부는 중죄에 해당되는 동시에 도미티아누스의 강력한 전체적 통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도미티아누스는 유대인세금납세 거부 행위를 반역행위로 여겨 유대인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던 것이다.

한편 제신숭배 거부에서는 도미티아누스의 종교정책과 기독교인들의 제신숭배 거부에 관해 살펴보았다.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이교도의 종교제외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제신을 숭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종교적 혼합주의를 이루고 있었던 로마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제신숭배거부는 이교도들의 심각한 반발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신들의 수호자임을 자처하였던 도미티아누스에게 심한 모욕감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제신숭배거부는 로마 제신들을 모독한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동시에 무신론자로 처벌받게 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인들이 신봉하는 제신을 우상숭배로 여겨 도미티아누스의 제신숭배 종교정책을 전적으로 거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로마제국의 제신들의 신성을 비판하고 숭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의 행동은 도미티아누스로부터 잔인한 고문과 재산몰수 등의 다양한 형태로 처벌받았다.

기독교의 만인평등사상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사상적으로 내세웠던 만인평등사상이 로마귀족사회에서 귀족집단과 충돌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만인평등사상을 받아들여 사회전반에 전교하였다. 이러한 전교로 인해 로마사회 내부에 노예와 자유인에 대한 평등을 강조한 기독교의 만

인평등 사상이 하층계급집단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주장하였던 만인평등사상은 고대 로마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충격적인 사상이었다. 특히 도미티아누스는 제국의 노동력과 경제력 확보를 위해서 노예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만인평등 사상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들의 전교행위는 황제의 이러한 정책에 위반하는 행동이며 더 나아가 사회제도의 전복을 꾀하는 반역행위였던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만인평등사상은 도미티아누스로 하여금 로마사회를 전복하고 그리스도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이러한 오해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대한 도전으로 비쳐져 기독교인들에 대해 박해를 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궁극적으로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는 당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적 요인으로써 발생하였다.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여길 정도로 강력한 황제숭배정책을 시행하였고 군인봉급인상 및 대규모 공공건물 공사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행사에 지불되었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유대인세금을 확대 징수하였던 것이다. 또한 고대 로마사회에서 제신숭배 및 노예제도는 그 사회를 지탱하는 제도와 관습이었다. 이러한 로마 제국의 제도와 관습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신앙만을 강조하여 그들의 신앙과 배척되는 어떤 것과도 순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도미티아누스는 로마제국의 황제로서 자신의 정책을 거부하고 제국의 제도와 관습을 배척하는 기독교인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들과 달리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와의 갈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로 박해를 받았던 것이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로마국교로써 공식적으로 공인되기까지 약 250년간 로마제국과 기독교간의 충돌은 로마 사회 전반에 많은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였다. 로마제국의 10대 기독교 박해 중의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는 기원후 64년 네로의 기독교 박해 이후 로마 역사상 두 번째에 해당되는 박해였다. 따라서 본 연구로 인해 도미티아누스의 통치와 성격을 재조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제국의 10대 박해사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참 고 문 헌

1. 1차 사료

Dio Cassius, *Historia Romana*, trans., Earnest Cary, *The Roman History* (Harvard University Press, 1914).

Eusebius Pamphilus, *Historia Ecclesiastica*, trans., K. Lake, *The Ecclesiastical History*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Josephus, *Bellum Judaicum*, trans., H. J. Thackeray, *The Jewish war*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_____, *Antiquitates Judaicae*, trans., Ralph Marcus, *Jewish Antiquiti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Suetonius, *De vita Caesarum*, trans., J. Rolfe, *The Historie of Twelve Caesars: emperors of Rome* (Artemis & Winkler, 1997).

Tacitus, *Annales*, trans., John Jackson, *The Annales of Tacitu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_____, *Histories*, trans., H. Moore, *The Histories of Tacitu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_____, *Agricola*, trans., R. Birley, *The Agricola of Tacitu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2. 2차 사료

Adrian. Goldsworthy, *In the name of Rome : the men who won the Roman Empire*,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강유리 역, 『로마전쟁영웅사』 (말글빛냄: 2005).

A. H. M. Jones, *Athenian Democracy* (New York Praeger, 1958).

- Barrett, *The Corruption of Power* (London, 1989).
- Brian W. Jones, *The Emperor Domitian* (Routledge Inc, 1992).
- Boyle Isaac,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Eusebius Pamphilus* (Baker Book House, 1989).
- De Ste. Croix, G. E. M, *Christian Persecution, Martyrdom, and Orthodoxy*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Earle E. Cairns, *Christianity Through The Centuries* (Grand Rapids, 1979).
- Edward Gibbon,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Vol. I (Chicao, 1972).
- E. T. Merrill, *Essays in Early Christian History* (London, 1924).
- Eusebius, *The History of the Church from Christ to Constantine* (Penguin Books, 1965).
- _____, *The Ecclesiastical History* (Harvard University Press, 1964).
- F. F. Bruce, *The Spreading Flame* (Wm. B. Eerdmans, 1992).
- Garnsey, *Social Status and Legal Privilege in the Roman Empire*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 H. C. Boren, *The Ancient World* (Englewood Cliffs, 1976).
- H. Chadwick, *The Early Church* (London. 1976).
- Josephus, *The Jewish war*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Justo L. Gonzalez,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 I (New York, 1970).
- K. D. Ostrand, *Aspect of the Reign of the Emperor Domitia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4).
- K. M. Setton & Winkler, *Great Problems in European Civilization* (London, 1966).
- K. S. Latourette,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Vol. I (Newper and Row, 1980).
- _____, *The Gospel, The church and the world* (Harper & Brothers, 1946).
- L. L. Thompson, *The book of the Revel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 M.C. Tenney, *New Testament* (Grand Rapid, 1965).
- Marie G. King, *Foxe's Book of Martyrs* (Westmood N. J. 1968).
- Mattew Arlen, *The Story of Christianity* (New York, 2003).
- N. T. Bull, *The Rise of the Church* (London, 1967).
- O. Charwick, *A History of Christianity* (New york, 1995).
- R. Parker, *Athenian Relig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Wm. B. Eerdmans Pub Co., 1949).
- Peter. Wiseman, *Domitian and the dynamics of terror in classical Rome* (Academic

Research Library, 1996).

S. A. Cook, F. E. Adcock, M. p. Charlesworth,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vol VII, (Cambridge Univ. Press, 1928).

Scarre Christopher, *Chronicle of the Roman emperors* (Thames, 1995).

S.R.F. Price, *Rituals and Power: The Roman Imperial Cult in Asia Mino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Stegemann, *The Jesus Movement: a social history of its first century* (Fortress Press, 1999).

Steven H, *Imperial Inquisitions: Prosecutor and Informants from Tiberius to Domitian* (Routledge, 2001).

W. E. Caldwell, *The Ancient World* (New York, 1950).

Boriaud, *Histoire de Rome*, (Baker Book House, 2001), 박명숙 역, 『로마의 역사』 (공리출판사: 2007).

Edward Gibbon,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4), 황건 역 『로마제국쇠망사』 (청미래, 2005).

Eusebius, *The History of the Church from Christ to Constantine*, (Harvard University Press, 1914), 정요셉출판사 역 『에우세비오 교회사』 (정요셉출판사, 1989).

Justo L. Gonzalez, *The History of Christianity*, (Thames, 1964), 서영일 역, 『초대교회사』 (서울: 은성, 1987).

Lissner, Ivar, *So Lebten die Roemischen Kaiser*, (Harvard University Press, 1964), 김지영, 안미라 역, 『로마황제이야기』 (살림출판사: 2007).

Philipp. Vandenberg, *Nero*,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최상안 역, 『네로』 (한길사: 2004).

김지찬, 『요세푸스 III』 (생명의말씀사, 2008).

성서원 성경편찬위원회, 『베스트 성경』 (성서원, 2008).

송암 허승일 선생 정년기념 논저간행위원회, 『인물로 보는 서양고대사』 (도서출판 길, 2006).

수에토니우스, 『열두 명의 카이사르』, 조윤정 역 (다른세상사, 2009).

이대섭, 『초기 기독교의 역사적 배경』 (서울: 성광문화사, 1992).

지동식, 『로마제국과 기독교』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0).

타키투스, 『연대기』, 박광순 역 (범우, 2005).

3. 연구 논문

- A. N. Sherwin-White, "why were the Early Christins Persecuted? : An Amendment", *Journal of past and present*, Vol. 27, 1964.
- A. Y. Collins, "The political perspective of the Revelation to John",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Vol. 96, 1977.
- B. Reicke, "Inauguration of Catholic Martyrdom according to St John the divine" *Augustinianum*, Vol. 20, 1980.
- Boris Rankov, 「회고록, 자서전 그리고 타키투스의 Agricola」 『서양고대사연구』 Vol. 8, 2000.
- E. M. Smallwood, "Domitian's attitude to the Jews and Judaism", *History of Christianity*, Vol. 51, 1956.
- G. E. M. de ste. Croix, "why were the Early Christins Persecuted? A Rejoinder", *Journal of past and present*, Vol. 27, 1964.
- H. Bruce, "Nerva and the ficus Iudaicus",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Vol. 96, 1964.
- Heinz Bellen, 「로마황제이념의 기독교화에 관하여」 『서양고대사연구』 Vol. 2, 1994.
- Henry C. Boren, "Numismatic Light on the Gracchan Crisis", *Th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Vol. 24, 1980.
- James S. McLaren, "Jews and the Imperial Cult: From August to Domitia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Vol. 27, 2005.
- J. Fitton, "Domitian and Saint John in Malalas", *Byzation*, Vol. 44, 1974.
- K. Hopkins, "Taxes and trade in the Roman empire", *Journal of Roman Studies*, Vol. 70, 1980.
- K. H. Waters, "The character of Domitian", *Phoenix*, Vol. 18, 1964.
- K. M. Coleman, "The Emperor Domitian and Literature" *Aufstieg und Niedergang der romischen Welt*, Vol. 32, 1986.
- L. Thompson, "Domitian and the Jewish tax", *Historia*, Vol. 31, 1982.
- H. Moore. "Domitian part I", *Irish Biblical Studies*, Vol. 25, 2003.
- Neil McLynn, "Pagan, Christian and Emperors in the Roman World" 『서양고대사연구』 Vol. 23, 2008.
- P. Keresztes, "The Jews, The Christians, and The Emperor Domitian", *Vigiliae*

Christiana, Vol. 27, 1973.

P. McCormick, "Domitian part II", *Irish Biblical Studies*, Vol. 25, 2003.

W. H. C. Frend, "The Failure of the Persecutions in the Roman Empire", *Journal of Past and Present*, Vol. 16, 1959.

김균진, 「기독교의 일신론적 사고와 그 문제성」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신학논단』 Vol. 20, 1992.

배은숙, 「로마 군단병의 봉급변화」 『대구사학』 Vol. 75, 2004.

신성중, 「초대교회의 선교와 성장, 박해시대의 선교와 교회의 발전」 『연세대학교 신학세미나논집』 Vol. 6, 1986.

유은결, 「요한계시록의 황제제의」 『신약논단』 Vol. 15, 2008.

정기문, 「초기 기독교의 선교활동」 『서양고대사연구』 Vol. 21, 2007.

정기환, 「도미찌아누스 황제와 박해」 『현대사상연구』 Vol. 2, 1985.

_____, 「플라비아누스 황제 시대의 기독교」 『서양고대사연구』 Vol. 13, 2003.

조규창, 「로마법 발전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 『법학논집』 Vol. 26, 1991.

조인형, 「콘스탄티누스대제의 기독교로의 개종배경」 『서양고대사연구』 Vol. 4, 1996.

최혜영, 「로마황제숭배와 기독교」 『서양고대사연구』 Vol. 19, 2006.

신명숙, 「로마시대 황제숭배사상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이한복, 「로마제국의 초기 기독교 박해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임영호, 「로마제국의 기독교 박해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전명환, 「로마제국의 초대교회 박해와 순교자들의 신앙연구」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2008).

<ABSTRACT>

A Study of Domitian's Christian Persecution

Won-Gyu Lee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ye-Kyung Moon

This paper examines the persecution of Christians exercised by the Roman emperor called Domitian in the first century A.D.

Domitian's persecution of Christians in A.D. 64 was the first persecution occurred since the Emperor Nero's. This is why studying Domitian's Christian persecution is important in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Ten Roman Christian Persecutions.' The paper alludes a lot of significance in the field because it illuminates the factors of Domitian's persecution that had not been explored much,

Domitian became an emperor of Rome in A.D. 81 due to the unexpected death of his brother, Titus, who had succeeded Vespasian. Under Domitian, who declared himself the living god (*Deus*), Roman Empire had become an autocracy. He raised the Roman soldier's pay to 300 denarius and pushed forward the building of an extravagant temple. His frequent public events as well as the generous pay and excessive spending on construction brought about scarcity of resources.

The factors of Christian persecution under Domitian's reign can be identified as the following: Christian's refusal of the practice of the imperial cult, refusal to pay the Jewish tax, dissent to worship 'gods of the state,' and retention of egalitarian ideology.

Looking at Domitian's religious policy, we can see that the refusal of the imperial cult practice was one of the factors of Christian persecution. Christianity was a

faith-based community, which follows the teachings of Jesus. Therefore, Christians strictly worshiped their God, maintaining their monotheistic practices and rejecting the imperial cult. In other words, their belief and practice defied Domitian's policy of the imperial cult. Domitian considered such resistance as the ultimate denial and insult to the deification of himself. This became a significant reason for Christian persecution during the Domitian's reign.

Domitian's Jewish tax policy also is considered as one of the factors of Christian persecution. In A.D. 70, Vespasian, the father of Domitian, had levied Jewish tax in order to use it as an offering to Jupiter. In the early A.D. 90, Domitian levied the tax to a larger crowd of people to secure the economy. For Christians, to pay the Jewish tax was more than a simple legal responsibility; it was a reflection of their faith. Christians, who could not go against their faith, did not pay the tax that would turn into a sacrifice for other god. Domitian, who desperately needed the money to secure his authority, regarded Christian's such act as treason and started to persecute Christians.

Another factor of Christian persecution appears to be the strong protest from other religions against the Christians who refused to worship the gods of state. The Roman society at the time was of a religious syncretism, thus Christian's refusal to worship the gods sparked the other religions' resistance. Most importantly, Christian's act insulted Domitian who considered himself as the guardian of the gods of Rome. In addition, the revenues generated from the offerings and supplies used for the sacrifices had decreased. Consequently, Christian's refusal to worship the gods of state became one of the main causes of the persecution.

The paper also examines Christian ideology of egalitarianism as another reason for Christian persecution. In ancient Rome, such egalitarian ideology could not be socially accepted. Domitian was especially interested in using slavery as a way to secure labor force and economic power. In this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Christian's egalitarian acts were considered not only as treason against the emperor's policy, but also as an attempt to overthrow the social order. Christian's ideological emphasis on egalitarianism, without a doubt, caused people of Rome to speculate Christians' scheme to establish the kingdom of Christ after overthrowing the Roman government.

This was more than enough of a reason for Domitian to persecute Christians cruelly.

Domitian's Christian persecution was caused by many political and societal factors. Imperial cult and Jewish tax were two of Domitian's main policies and the practice of god-of-state worship and slavery were like the pillars of social institution in ancient Rome. From a ruler's perspective, Domitian could not tolerate the Christians who denied his policies and the societal customs. These are the factors that led up to Domitian's persecution of Christians.